

발행호: 41호

발행일: 2018.07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임두빈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Focus

[005] 스마트시티 건설과 중남미

신승철 (한·중남미협회 회장)

2. Issues

[023] 2.1. 멕시코 대선 의미와 전망 - 정치사적 관점에서-

엄기웅 (Mundus Aperti 로펌 대표 변호사)

[061] 2.2. 2018년 쿠바 국가 - 시민사회 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바라본 정치변화 고찰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083] 2.3.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의 경제적 의미

권기수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3. People

[091] 파울루 프레이리 (Paulo Reglus Neves Freire)

양은미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4. Country Report

[103] 베네수엘라, 마두로 재집권의 의미

황의승 (대구가톨릭 대학교, 전 칠레 대사)

5. Diary

[113] Zona Cero: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 현장

장정윤 (과테말라 한인회 홍보부장)

6. 서성철 교수 추모

[125] 서성철(徐聖哲) 선생 전(傳)

김세건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137] 서성철을 기억하다

임상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장) / 김영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구경모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최명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7. Academy

[151]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는

8. ILLAS

[161] 간추린소식



스마트시티 건설과 중남미

신승철 (한·중남미협회 회장)

지난 6월 28일부터 이틀간 여의도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개최되었고, 이 포럼의 주 의제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협력이었다. 필자는 본 포럼의 이틀째인 6월 29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개최된 『스마트시티.도시재생 분야 양자, 다자 협력』 세션의 좌장을 맡는 영광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향후 이 분야에서 우리와 중남미 간의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남미의 거주 환경

이번 회의에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ECLAC(유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 UN Habitat(유엔 인간주거계획), IDB(미주개발은행), CAF(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의 대표자 또는 간부들의 중남미의 거주 환경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중남미 지역에는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82%를 기록하고 있는 북미 지역 다음으로 도시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50년의 도시 거주 비율이 42%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 60여 년 동안 중남미의 도시화는 매우 급격히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중남미에는 인구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50여개나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화를 통해 중남미의 도시들은 과포화현상이 생겼고 이와 동시에 거대하고 호화로운 도심과 주변의 외곽에는 빈민가의 상징인 슬럼지역이 형성되어 공존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중남미의 도시들은 이에

수반되는 교통, 통신, 에너지, 안전, 환경, 식수 공급, 쓰레기 처리, 재난 방지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느 한 시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가공할 위력을 보여 도시를 초토화하기도 한다.

중남미에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도전적 요소로는 아래 사항을 들 수 있다. 그것은 (1)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2) 낮은 생산성 (3) 높은 비정규직 취업률 (4) 낮은 세금 징수율 (5) 불충분한 인프라 투자 (6) 저조한 오지 및 지역의 통합 (7) 사회적 불안정, 범죄 및 폭력 (8) 환경, 기후변화 및 회복성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에도 총체적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중남미도 전통적인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혁신적(innovative)이고, 보다 경쟁력(Competitive)있고, 보다 매력적(attractive)이고, 보다 회복성(resilient)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ve) 속에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마주치는 매우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중남미 거주환경 개선 노력

이러한 중남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국가는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사업으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SDGs는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17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11번째 목표가 바로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다.

약 2년 전인 2016년 10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 세계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총회는 SDGs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의제』 (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이 의제는 도시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국제사회의 도시정책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다. 유엔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정보와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집단 지식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세계도시포럼』 (World Urban Forum)을 2002년부터 2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데, 제9차 회의를 금년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의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 협정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약』과 『새로운 도시 의제』 등 국제적 아젠다가 채택됨에 따라 중남미의 각 국가들은 사회, 주택, 거주 및 도시 개발을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에 기초한 『포용도시』 (Inclusive City)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도시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남미의 유엔 해비타트 중남미지역사무소 (UN-Habitat/ROLAC)와 ECLAC은 중남미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IDB와 CAF 등 역내 MDB(다자개발은행)는 이러한 공공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남미 개발은행이 역점을 두는 도시개발 분야

중남미의 개발은행들은 역내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포용성(inclusion)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지역으로서 역내 주민의 25-45%가 빈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타파하는데 투자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성(Productivity)이다.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하였을 때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도시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과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회복성(resilience)이다. 중남미의 도시들은 공기 오염, 물 오염, 쓰레기 등으로 도시지역의 환경이 훼손되어가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부터의 많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이다. 현재 중남미 10개의 가정 중에서 6개의 가정이 브로드밴드에 접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TC기술의 확산이 역내 개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이의 적극적인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 따라 중남미개발은행들은 (1) 교통 분야 투자를 통한 공간의 연계성 강화 (2) 상수도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환경 보호 등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3) 교육과 연수,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 (4) 공원과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한 사회적 융합도 증진 (5) 정부의 각종 제도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유일한개발은행인 CAF는 교통 분야, 물 및 위생 분야, 도시재생 분야, 혁신 분야, 보안 분야, 환경 분야, 교육훈련 분야, 자전거도로 분야, 에너지 분야, 쓰레기처리 분야 등에 최근 5년간 약 70억불을 융자, 지원하였다. 또한 통신 분야에 대한 중남미의 전체 프로젝트 예산은 200억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도시 건설 및 도시재생 사업

오늘날 한국은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은 U시티 사업이 시작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시티 사업은 2000년부터 빠르게 확산된 정보통신망에 신도시 공간과 재원을 결합하는 형태로 확산됐다. 국내 통신·방범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조성된 U시티는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이른다.

동탄, 판교 등 신도시 기반 U시티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에 『U시티법』이 제정됐다. U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에 스마트솔루션이 됐지만 신도시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도시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U시티로 시작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시대 변화와 함께 2017년에는 『U시티 법』이 『스마트시티 법』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개최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 생활권(83만평)은 에너지·교통을 기본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역 중심, 66만평)은 워터시티 컨셉과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감한 규제개혁을 진행해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곳은 백지상태에서 조성되는 신규 도시로서 자율주행 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쇠퇴하고 노후화 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의 단절이 없게 하자는 정책인 것이다. 즉 개발 이익에 중점을 둔 확장적 도시개발이 아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도시 재생 사업에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환경,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의 드론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 사하구의 고지대 생활환경 프로젝트, 포항 북구청 부지의 청년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양주시 금곡동내 도심 속 낙후 지역의 주민주도형 정비 사업, 세종 조치원의 중심 시가지형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방안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중남미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며, 협력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미 중남미에서 신도시 분야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신도시사업이다.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사업 시행자인 GEL (Grupo Empresarial Lafuente)사가 볼리비아 제1의 경제도시인 산타크루즈 인근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55 km²)로 건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조2천억원, 계획인구는 45만명에 달한다. 우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4년부터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 사업의 기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등 사업관리(PM) 자문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5월 24일 LH는 본 사업 시행자인 GEL사와 산타크루즈 신도시 시공 관리(CM) 분야 자문협약을 체결하여 본사업의 수행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은 중남미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 도로 및 교통 등에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중남미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분야에서 우리의 참여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에 대비하여 우리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남미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개발투자형이거나, 민관협력 형태의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의 정부 대 정부간(G2G)의 협력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홍보,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의 협력의지와 기술력을 상대방 국가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공기업이 상대 국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선도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규모,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금융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금융 지원을 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무상 ODA인데, KOICA의 무상원조 자금과 수출입 은행의 EDCF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통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나, 유관 기관(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으로는 PPP사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미래포럼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6월 26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발족되어 우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KIND는 사업 발굴 및 구체화, 지분(Equity) 투자 등 디벨로퍼 역할과

엔지니어링, 건설금융,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앞으로 KIND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월드뱅크(W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카리브개발은행(CDB) 등과 공동연구·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과의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CAF와 KIND 간에 상호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의 금융과 MDB의 금융이 서로 협력하여 투자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큰 도약이 있기를 바란다.

중남미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자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미래 포럼을 통해 우리와 중남미 간에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기술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지 실정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남미는 중남미만이 가지는 특수한 배경과 여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모델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 보다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들 간의 다차원적인 상생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협력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이라는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은 물론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멕시코 대선 의미와 전망 - 정치사적 관점에서-

엄기웅 (Mundus Aperti 로펌 대표 변호사)

1. 들어가며

2018년 7월 1일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멕시코에서 발생하였다. 1917년 이래 최초로 진보 개혁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멕시코는 ‘정치라는 상부구조가 경제 하부 토대 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권위주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적 레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이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외에는 다른 정당이 집권하기 힘든 구조적 속성과 정치 관행을가지고 있다.¹⁾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들을 배분하는데 있어 권력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현상을 정치라고 꿰뚫어 본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멕시코는 이스턴의 정의를 200% 실현하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대통령)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경제적 이권 부여, 주요공직자 임명 등)가 대통령 임기 동안 이해세력들에게 철처하게 분배될 뿐 아니라, 관성을 가지고, 정권을 넘어 지속되기 때문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멕시코 근대 정치사에 있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새로운 정권의 나아갈 길과 한계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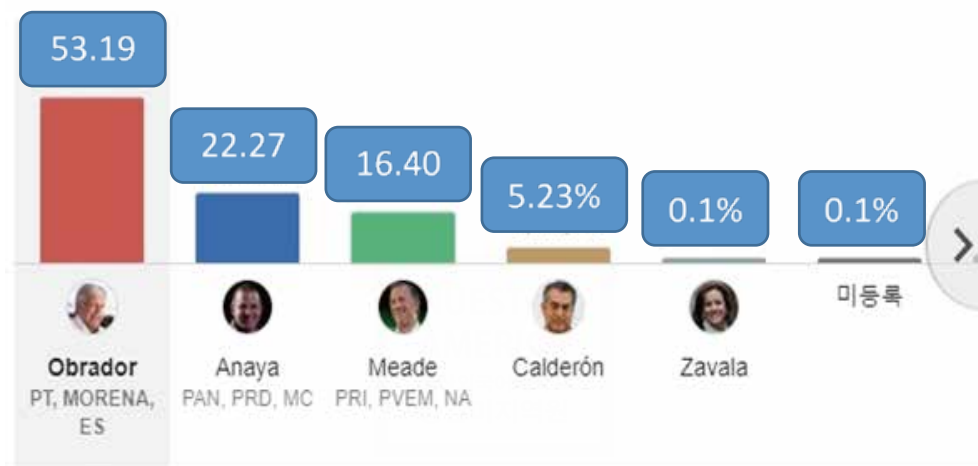
1) 물론 2000~2012년간 국민행동당(PAN)의 집권이 있었으나, 큰 정치사의 흐름에서 이번 국가재건운동(MORENA)의 당선이 주는 정권 성격의 변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

2) 이를 6년 단임 현상 즉, "Sexenio"라고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대선 결과 요약: 100년만의 진보정권 탄생

〈표 1〉 멕시코 대선 개표 결과



2018년 7월 1일 대선 투표 결과, 좌파 성향을 띠는 노동당(PT)과 연합한 MORENA (국가재건운동)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일명 암로, AMLO) 후보가 53.19%의 득표율로, 멕시코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 2위는 우파성향의 국민행동당

(PAN)과 좌파 성향의 민주혁명당(PRD) 연합 후보인 아나야가 22.27%, 3위는 현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 후보인 미드가 16.40%의 득표를 기록하였다.

〈사진 #1〉 환호하는 지지자 앞에 선 대통령 당선자 모습



자료원: 구글 이미지, 2018. 7.1.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8년12월1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2024년 10월1일까지 5년 10개월 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³⁾

3. 1917년 이후 멕시코 정치 약사

근대 멕시코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1910년에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헌법개정에 따른 연임에 반발하여 시작된 재선반대운동은 유혈 혁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7년의 기간동안 수차례의 혁명과 쿠데타, 그리고 암살로 이어졌으며, 1917년에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혁명 세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대대적인 헌법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1920년대에는 소노라 왕조 (grupos de Sonora)라고 불리는 소노라 주 출신의 대통령들의 집권과 개인적

3) 1917년 이후 멕시코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단임제 6년으로 규정하고, 선거는 7월 1일, 임기 시작은 12월 1일로 정하여 온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정치개혁을 통해 대통령 당선 후 5개월의 인수 기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헌법 제 83조를 개정하여 대통령 선거일은 그대로 두되, 임기시작을 10월 1일로 변경하여, 인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다. 단,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번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성심에 따른 정치 행태인 카우디요 (Caudillo) 주의가 강하게 존재해서, 1929년에 가서야 혁명을 제도화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정당이 엘리아스 케예스에 의해 창당되었는데, 이 정당이 바로 1929년~2000년, 2012년~2018년간 총 77년을 집권한 제도혁명당(PRI)⁴⁾이다.

제도혁명당은 태생부터 혁명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이었으므로, 혁명 주체 세력인 노동자, 농민, 민중, 군인을 위한 정당활동을 목표로 한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혁명정신은 퇴색하였고, 제도혁명당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한 보수 정당으로 변해 갔다.

1988년의 개표 정전사태(Caída de Sistema), 1994년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여당 후보의 암살 등으로 PRI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2000년~2012년까지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N)에 2명의 대통령을 내어주게 된다.

4) 최초부터 PRI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PNR(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 국민혁명당, 1929~1938)과 PRM(Partido de la Revolución Mexicana, 멕시코 혁명당, 1938~1946)을 거쳐 PRI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에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개혁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4. 멕시코 정치의 특징: 제왕적 대통령제

멕시코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인데 비해, 멕시코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

멕시코는 1917년 이후로 제도혁명당(PRI)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치 관행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현직 대통령이 당원 또는 대의원이 참가하는 전국 정당 대회를 통해

5) 멕시코의 유명한 정치사상가인 엔리케 크라우제는 10만권 이상 팔린 제왕적 대통령 'Enrique Krauze, La presidencia imperial (Tusquets Editores:1997)' 이라는 저서에서 역대 대통령을 챕터별로 살펴보면서, 제도가 아닌 개인 카리스마에 좌우되는 멕시코 대통령제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후임을 지명하고⁶⁾, 그 후임은 어김없이 제도혁명당(PRI)의 후보로 선출되며, 그 후보는 어김없이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정치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치관행을 지탱하는 정치사회적 기제들이 존재하는데, 코포라티즘, 차리즘, 포폴리즘, 센트럴리즘 등이다.

멕시코 정치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 절차에 있어 제도적 민주주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권위주의적 당 후보 선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 후보와 노조지도자간의

6) 전당대회 전날까지 누구를 당 후보로 지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있다 하여 Tapado (베일에 가려있음)라는 정치용어와 전당대회 당일 극적 효과와 함께 후임을 지명하는 Dedazo(손가락으로 지명함)라는 정치용어가 존재한다.

밀약과 Closed Unionshop⁷⁾의 교묘한 결합에 의한 투표 왜곡⁸⁾, 노조 지도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지원⁹⁾, 그리고 대중결합주의 정책 남발에 따른 장기적 국가 발전 정책 및 동력 부재 및 이에 따른 폐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멕시코시티로 집중되는 부작용¹⁰⁾ 등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 또는 비판을 담고 있다.

5. AMLO 당선 요인 분석



진정한 의미의 개혁성향의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7) 조합원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고, 근로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형태를 말한다. 멕시코 연방노동법의 원칙은 Open Shop이나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노조를 위시한 많은 노조에서 단체협약 조건으로 Closed Shop을 정하여 왔다.

8) 코포라티즘은 멕시코의 권위주의적 정치관행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다.

9)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라고 강화한 노조의 권한은 권위주의적 노조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 노조의 권력이 사유화 귀족화 제도화 되는 폐단을 노출하였고, 이를 차리즘이라고 한다.

10) 센트랄리즘은 멕시코 현대 정치에 있어 가장 큰 폐단의 하나이다.

배출된 적이 없었다. 제도혁명당 (PRI)과 민주혁명당 (PRD)의 비민주적 운영과 보수화에 반발해서 2014년에 신설된 좌파 성향의 국가재건운동 (MORENA)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멕시코 정치사에 있어 매우 큰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왜곡없이 표출되었다.

1968년 툼랄텔롤코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은, 1982년 외채위기 이후 이식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반발과, 교육 수준 향상과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계몽 현상에 의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정치 개혁 또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멕시코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권위주의적 정치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8년의 개표 정전사태 (Caída de Sistema),

1994년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여당 후보의 암살 등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였고, 2000년에 마침내 71년 일당 독재 체제를 종식하고,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N) 소속 비센테 폭스 (Vicente Fox)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2000년~2012년간 집권한 2명의 국민행동당(PAN) 출신 대통령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통치를 하였으며, 개인 비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마피아를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2012년에 제도혁명당(PRI)이나 국민행동당(PAN)이 아닌 새로운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역사적인 흐름이었고, 순서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매표, 투개표 부정의 많은 의혹 속에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가 당선되었다. 어찌보면 제도혁명당(PRI)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혁명 주체세력으로서 진정한 보수 권력을

유지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은 집권 중 여러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내치나 외치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1일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약어로 AMLO) 후보가 53.2%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사진 #2〉 환호하는 지지자 앞에 선 대통령 당선자 뒷모습



자료원: 구글 이미지, 2018. 7.1.

AMLO 후보의 당선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현 정권의 무능, 저소득층의 증가, 변화에 대한 열망 등을 꼽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멕시코에서 마침내 제도적 민주주의가,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표현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즉, 지난한 세월을 거쳐 마침내 국민의 열망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표출된다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매표와 투개표 부정을 더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기존 미국 위주의 선거 감시단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공명한 선거 감시가 있었다.

단호한 프랑스 대선과 총선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Cronism(정실주의)을 봐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국민의 열망’이라고 한다면, 높아진 시민의식과 공명한 선거 감시는 이러한 열망의 ‘적극적이고 왜곡없는 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 두가지 요소, 즉, ‘열망’과 ‘적극적이고 왜곡없는 표현’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둘째, 제도권 정치 내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었다.

제도혁명당(PRI)의 독주에 안주하고 있던 제도권 정치인들이 각성하였다. 여기서 각성하였다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는 아니다. 잘못된 정치관행에 편승하여 살아온 자신의 정치인생을 스스로 반성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동원(mobilization)과 조작(manipulation)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선거가 될 것임을 알아챘다는 뜻이다. 따라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적을 바꾸어 대선 기간 중 AMLO 캠프로 모여들었다. 이제는 코포라티즘도, 여론 조작도, 대표행위도, 투개표 부정도 힘들다는 컨센서스가 대선 수개월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론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2위도 아닌 3위를 힘겹게 달리고 있었고, 현 대통령은 AMLO와의 밀약을 통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AMLO는 퇴임 후를 봐준다’는 루머가 널리 퍼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등한시 하고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자부하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줄을 지어 AMLO에게 갔다는 사실은 AMLO 정권 탄생 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6. AMLO 정책, 내각 및 공약 분석

AMLO가 주도하여 2014년에 만든 국가재건운동(MORENA)당의 강령 제 2조에 여섯가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변혁, 둘째, 모든 형태의 억압, 부정의, 불평등, 인종차별, 불관용, 특권, 배제, 그리고 부(富)와 국가 자산의 파괴에 대항하는 자유 의지에 따른 조직 건설, 셋째, 선거에 의한 지도부의 민주적 통합, 넷째, 공직과 정치인간의 결탁에 따른 부정과 특권 근절, 다섯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기아와 가난 극복을 통해 진정한 자유 쟁취, 여섯째, 인간성, 개인과 집단의 전면적인 발전과 조국의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멕시코 국민의 열정, 정체성, 기억, 창조성의 최대한 발휘. 이 여섯가지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의 정신혁명과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복지 달성 및 인간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조에서는 현 정치의 폐단인 영향주의 (in-fluyentismo)¹¹⁾, 정실주의 (amiguismo), 친족중용주의 (nepotismo), 가산제 (patrimonialismo)¹²⁾, 클리엔텔리즘

11)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관급 공사에 있어 정해져 있는 투명한 절차나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정권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계약권을 주는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한 예로, 3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급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중요한 원인으로, 35%가 영향주의, 25%가 기술적 우위, 23%가 부정행위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결정권자와 관계가 없는 건설사가 뇌물을 주고 계약권을 따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설전문지, Obras, 2016.7.27)

<http://obrasweb.mx/construccion/2016/07/27/influyentismo-la-sombra-de-las-licitaciones-construtores>

12)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있어 법 제도를 뛰어넘어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적이고 과두제적인 특징을 지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clientelismo)¹³⁾, 배신주의(entreguismo)¹⁴⁾, 코포라티즘을 배격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형태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단절할 것임을 적고 있다.

국가재건주의(MORENA) 당은 카르데나스 주의(-cardenismo), 사회개량주의(reformismo), 사회민주주의, 좌익 내셔널리즘 노선 중 민족 주권 수호, 국민 개개인의 인간성 회복, 국가 발전에 일치하는 내용을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의 대선 도전에 실패한 준비된 대통령 AMLO는 일찌감치 차기 내각을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 내무부 장관으로 Olga María del Carmen Sánchez Cordero (연방대법관 출신), 외무부 장관으로 Marcelo Ebrad (멕시코시티 시장 출신), 재무부 장관으로 Carlos Manuel Urzúa Macías (AMLO가 멕시코시티 시장 재직시 시

14) 협상에 있어 부당한 반대급부를 댓가로 이권을 넘겨주는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주로, 국가지도자의 국가 자원의 부당한 판매 행위나, 부패한 노조지도자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조 권리 포기 행위 등을 말한다.

재무부장관 출신), 경제부 장관으로 Graciela Márquez Colín (학자 출신), 에너지부 장관으로 Norma Rocío Nahle (PEMEX 근무, MORENA 당 정책위원 출신), 농수산부 장관으로 Víctor Villalobos Arámbula (학자 및 국제기구 FAO 근무), 노동부 장관으로 Luisa María Alcalde (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으로 Esteban Moctezuma (관료 출신), 교통통신부 장관으로 Javier Jiménez Espriú (학자 출신), 환경부 장관으로 Josefa González-Blanco Ortiz Mena (환경운동가 출신), 관광부 장관으로 Miguel Torruco (멕시코시티 시정부 관광부 장관 출신), 공공기능부 장관으로 Irma Sandoval Ballesteros (학자 출신 정치인), 보건부 장관으로 Jorge Alcocer Varela (외과의사 출신 관료), 사회개발부 장관으로 María Luisa Albores González (농촌운동가 출신 정치인), 토지 및 도시 개발부 장관으로 Román Guillermo Meyer Falcón (건축가 출신 관료), 문화부 장관으로 Alejandro Frausto Guerrero (관료 출신), 공공치안부 장관(재신설)으로 Alfonso Durazo Montaña (1994년 도날도 콜로시오 대선 후보 비서 출신)을 내정하였다. 총 17명의 장관 중 8명을 여성으로, 5명을 40대 이하로 임명하여,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비중을 높혔다.

〈사진 #3〉 AMLO 차기 내각 발표



자료원: AMLO 공식 홈페이지 2017.12.14

<https://lopezobrador.org.mx/gabinete/>

공기업에 있어서, PEMEX(석유공사) 사장으로 Octavio Romero, CFE (연방전력공사) 사장으로 Manuel Bartlett¹⁵⁾ 을 내정하였다.

내각 및 공기업 사장 인선을 보더라도 급진적 인사보다는 좌우로부터 환영받는 무난한 인사를 임명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1) 정치 및 행정 분야

정치 분야에 있어, AMLO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대단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민주적인 당 조직 확대 및 국가 행정조직 개편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기

15) Manuel Bartlett은 1936년 생으로 오랜 기간 PRI 소속으로 장관 및 의원을 역임하였고, 2006년부터 PT (노동당)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1988년에 정전 사태를 통한 개표 지연 시 내무부 장관으로 CFE (Comisión Federal Electoral, 연방선거위) 위원장으로서, 개표업무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Manuel Bartlett은 당시 개표 부정 및 PAN과 밀약이 있었음을 2017년에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SDP Noticias, 2017년 7월 8일자, <https://www.sdpnoticias.com/nacional/2017/07/08/reconoce-manuel-bartlett-que-carlos-salinas-no-gano-eleccion-de-1988>) 이번에 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연방전력공사) 사장 임명은 대선에 연합전선을 형성한 PT에 대한 할당의 성격이 있는데, 30년만에 부정선거의 행정 책임자가 진보정권의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CFE라는 동명 이의 기관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위해 스스로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 놓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와 고위관료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를 요구할 것이다.

행정 분야에 있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목표는 비용 효율화 및 지방 분권화이다.

(1) 부패와 전쟁을 통한 공공지출 감소.

대통령 전용비행기 및 헬기 폐지,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급여 삭감 및 특혜 철폐, 전(前) 대통령 연금 삭제를 통해 5,000억 페소의 지출을 절감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것이다.

(2) 연방정부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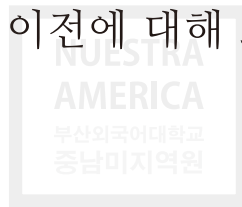
관광부는 키타라 로 주의 체투말 시로, 환경부는 유카탄 주의 메리다 시로, 석유공사는 치아파스 주의 톱스틀라 구티에레스 시로, 에너지부는 캄페체 주의 카르멘 시로, 사회개발부는 오아하카 주의 오아하카

시로, 교육부는 푸에블라 주의 푸에블라 시로, 문화부는
틀락스칼라 주의 틀락스칼라 시로, 공공건설은행은
모델로스 주의 쿠에르나바카 시로, 주택기금은 멕시코
주의 톨루카 시로, 보건부는 게레로 주의 아카풀코 시로,
사회보장청은 미초아칸 주의 모델리아 시로,
목축부(명칭 변경)는 할리스코 주의 과달라하라 시로,
공무원 보장청은 콜리마 주의 콜리마 시로,
국가체육위원회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주의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시로, 공공행정부는 께레타로 주의
께레타로 시로, 노동부는 과나후아토 주의 레온 시로,
인성개발부(신설)는 이달고 주의 빠추카 시로,
국가농산물보급위원회는 사카테카스 주의 사카테카스
시로, 통신교통부는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산루이스포토시 시로, 경제부는 누에보 레온 주의
몬테레이 시로, 공공정책은행은 코아우일라 주의 토레온
시로, 국가산림위원회는 두랑고 주의 두랑고 시로,
관광진흥기금은 나야릿 주의 바이아 데 반데라스 시로,
양봉 및 어업 위원회는 시날로아 주의 마사틀란 시로,
농어업부는 소노라 주의 오브레곤 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라

파스 시로, 이민청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의 티후아나 시로 이전한다.

대통령실, 내무부, 재무부, 외교부, 국방부, 해군부는 멕시코시에 그대로 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부패가 줄어들고,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행정부 공무원 노조들은 청사 지방 이전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 경제 및 산업 분야

멕시코는 1917년 혁명 이후 에너지 분야 국영기업들을 통한 국가주도 산업 발전 정책을 오랜기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2년 외채 위기와 1994년 NAFTA 가입 및 제 2차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식하여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¹⁶⁾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은 2017년 11월에 당 강령상 원칙과 목표를 실천할 10대 행동계획 (Programa)을 공표하였다. 이 행동 계획 중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과 이에 기반한 정책들은 예상과 달리, 대체적으로 친기업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국가독점과 식량주권 경제를 회복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면서, 민간분야의 경쟁은 촉진하는, 국가주도 신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 27조에서 유보한 국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독점 회복을 선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AMLO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6) 자세한 내용은 Um, Kiwoong.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and the State’s Role in Mexican Economy”. 서울대 경제학 석사논문, 2001 참조.

대통령 당선자는 민족 주권 연장선상에서, 국내 기업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기존 46개국과 맺은 12개의 FTA 조약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 이 때는 외국자본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AMLO는 또한, 부패가 개입된 관급공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MLO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와 산업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부패의 구멍이 크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 경제분야에 멕시코 최대 부호인 Carlos Slim Helú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Genera 그룹 (금융업 등)의 Carlos Danel, Kaluz 그룹 (석유화학건설, 금융)의 Antonio del Valle, Femsa 그룹 (코카콜라 보틀링 및 음료)의 José Antonio Fernández, Tresalia Capital (벤처 캐피털) 사의 María Asunción Aramburuzabala, Bimbo 그룹 (제빵, 제과)의 Daniel Servitje, Cinépolis 그룹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의 Alejandro

Ramírez, Lala 그룹 (유제품)의 Eduardo Tricio, Softtek사 (IT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의 Blanca Treviño, Kimberly Clark 사(화장지, 여성 위생용품)의 Claudio X. González 가 AMLO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여, 멕시코 경제인들의 고른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경제 산업 정책은 국가 자원 독점적 지위 회복, 공정한 경쟁 및 멕시코 기업 우선주의를 통한 국민 복지 달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자원 독점적 지위 회복이라 함은 헌법 제 27조에서 국가의 영역으로 유보한 석유 및 발전 산업에 있어 민간에 허용한 부분들을 최대한 회복함과 동시에 국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라 함은 부패를 추방하겠다는 것이며, 멕시코 기업 우선 주의라 함은 멕시코 기업을 육성하면서 가능하면 관급 공사에서 멕시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공약을 살펴보겠다.

(1)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율성 부여 및 거시경제정책 안정, 정부 예산 흑자 달성 및 외채 감소.

(2) 소득세 인상 없음. 세금 신설 없음. 특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 가솔린과 전력요금 인하.

(3)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 합작 유도.

(4)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1년 내에 750만 페소를 투자하여 정부 주도 시추 확대를 통해 일 석유 생산량을 현재 19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확대. 2년 내에 490억 페소를 투자하여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정유 생산을 현재 2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확대. 3년 내에 1,600억페소를 들여 타바스코 주 파라이소 시의 Dos Bocas 지역에 정유시설 1개 신설. 따라서, 3년 내 원유를 수출하고 정유를 76% 수입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솔린 가격 인하 달성.

(5) 1년 내에 200억 페소를 들여 수력발전 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 시설 확장. 키타나 로 주에 타바스코 주 및 캄페체 주로부터 용수 공급.

(6) 매년 100만채 이상의 서민주택 건설.

(7) 칸쿤-톨룸, 칼락물-팔렝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8)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부가세 8%, 소득세 20%로 인하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미국과 전력, 가스, 가솔린 요금 동일하게 유지.

(9)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

(10) 동남부 지역의 Lcandona 삼림 및 Usumancita 강을 중심으로 1백만 ha의 면적에 유실수 및 목재수 식수.

(11)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약 15% 인상하여 정권 말기에는 171.8페소로 인상.

(12)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생활자 그리고 빈곤층 장애인에게 월 1,200페소 지급.

(13) 선생님과 간호사 급여 인상.

(14) 낙후한 농촌지역과 원주민 사회 복원. 농산물 최저 구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자급경제를 구축.

(15) 은행 국유화 계획 없음. 금융분야 참여자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16) 현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허가 철폐 없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며,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현재 AMLO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호의적인 편으로 보인다. 페소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거시 경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노무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노동분야에 대한 생각은 인간다운 노동자 구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증대하며, 권위주의적인 노조 행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익분배제도(PTU) 미지급 및 불법 아웃소싱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효율적인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도 수술대에 오를 것이다. 다수당이 된 의회에서 연방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 분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1) 지난 2012년 말의 친기업적 성향의 노동법 개혁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법 개정 추진.
- (2) 코포라티즘을 배격한 민주적이고 근로자 우선의 노조 활동 지원.
- (3)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및 관련 법을 근로자가 실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개정.

(4)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15% 인상하여 임기말에는 171.8페소 달성.

(5)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최저임금 2배 인상.

4) 통상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가 통상에 있어서 피해를 보면 안되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있어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AMLO는 NAFTA는 현재와 같이 3자간 협약을 유지하면서 조속한 재협상 완료를 통해 NAFTA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AMLO는 12월 1일 대통령 취임 전에 현 정부가 최대한 현상 유지하면서 NAFTA 재협상을 마무리해 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태평양동맹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향후 AMLO 정권에서 통상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NAFTA와 다른 FTA에 대한 진짜 속내는 어떤 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편, 차기 AMLO 정부는 국내 생산 기업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하면, 국내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없이, 일반 수입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페냐 니에토 현 정부는 지난 6월 5일에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철강, 강판, 농산물 보복 관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새롭게 들어설 AMLO 정권은, 미국 아닌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재고없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MLO는 시우닷 후아레스 등 국경도시의 세관을 남쪽으로 20~30km 이전하여 국경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5) 외국인 투자 분야

전면적 국유화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에게 허용하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의 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감독에서 외국 기업이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기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엄격한 투명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아시아 국가 및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에 언급한 경제분야 정책 중 외자기업과 관련 있는 것을 다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통한 멕시코 태평양 해안 지역 발전 도모.
- (2) 은행의 국유화는 없을 것임. 금융분야 참여자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 (3)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부가세 8%, 소득세 20%로 인하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 (4)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 합작 유도.
- (5)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석유 및 화학제품 생산 증가. 3년 내 정유시설 부족에 의한 원유 수출 및 정유 수입 금지.

(6) 수력발전 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 시설 확장. 키타나 로 주에 타바스코 주 및 캄페체 주로부터 용수 공급.

(7)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

(8) 서민주택 건설 확대.

(9) 칸쿤-톨룸, 칼락물-팔렝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붓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수많은 관급 인프라 공사를 국내기업이 다 맡아서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외자기업들에게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7. AMLO 정권의 지향점과 한계: 멕시코 DJ의 나아갈 길

멕시코 근대 정치사에 있어 대변혁이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AMLO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에 광풍이 몰아쳐서 과거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행하여졌던 급진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AMLO의 인생역정, 지지기반, 지난 시절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예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AMLO가 이러한 신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책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며, 결국에는 기존 정책의 큰 틀에서 최대한 개선시키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AMLO는 제도권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야당 정치인이긴 하지만,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하였고, 대선후보에 세 번 도전한 중앙 정치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놀래킬 정책을 내어놓을 참신한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AMLO를 지지하고

보위하는 정치인들이 제도권에서 당적을 넘나들며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AMLO는 이들을 내칠 수 없다. AMLO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재계의 폭넓은 협조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으며, 10명의 찬성보다 1명의 반대없음이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멕시코가 처한 대외적 환경 때문이다. 멕시코는 혁명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념 보다는 경제, 문화, 종교적 문제들이 중요시되고, 적과 친구가 수시로 변화하는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에 멕시코가 던져져 있음을 AMLO는 알고 있다. AMLO의 정책이 흰 도화지에 그려질 수 없는 상황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DJ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정권 세력과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 보니, DJ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 참신한 정치인이 많이 발굴되었고, 한국 정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AMLO가 급진적 변화를 보여주기는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말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시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물 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날 것이나, 그 현상의 표출은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 때에 가서 전면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MLO의 별명은 페헤이다. 페헤(Pejelagarto, 동갈치)란 AMLO의 고향인 타바스코 주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 고기로서, 맑은 물에만 사는 1억년 전부터 존재해 온 살아있는 화석 생물이라고 한다.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인 AMLO와 페헤, 선명성을 추구해 온

정치인 AMLO와 페헤는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 혁명 이후 100년이 지났다. 향후 100년의 초석을 놓을 새로운 멕시코의 운명이 페헤에 달려있다.



2018년 쿠바 국가 - 시민사회 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바라본 정치변화 고찰 ¹⁾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I. 서론: 2018년 헌법 개정과 쿠바 시민사회 등장

2018년 7월 현재 쿠바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 등장 이후 새로운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1976년 쿠바 사회주의 헌법을 42년만인 2018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라울 카스트로 이후 경제 개방개혁 과정에서 ‘반(反)헌법적’ 사항으로 문제가 되었던 자영업 확대와 시장 체제 도입, 재산의 사적소유권 인정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등장에 맞는

1) 본 페이퍼는 하상섭(2018), “쿠바의 정치적 리더십 변화 고찰: Post-라울 체제 전망”, 중남미연구, 37:2, pp. 1-40 부분 발췌와 2018년 7월 현재 쿠바 헌법 개정 국면에 맞추어 새롭게 재해석 작성되었음을 밝힘.

정치체제 변화(예를 들어, 디아스-카넬 등장과 국가평의회 의장직 규정, 권력 분산, 사법제도 개혁 등) 등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제도적 반영, 특히 국영기업 자유화에 따른 제도적 차원의 규정 변화 등 중요 사항들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명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맞은 쿠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은 그동안 1당 지배 체제였던 쿠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에 대한 변화(비록 여전히 공산당 중심 체제이지만), 국가 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자유시장 경제와 사적재산 허용이라는 개혁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치 상층부의 독점적 권력 체제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들(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모든 권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리직 신설, 대통령 임기 5년 중임제 제한)이 눈에 띈다.

이와 더불어 쿠바 시민사회의 활발한 정치적 자유

보장 혹은 쿠바 내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은(물론 기존 헌법에도 존재했지만) 과 함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되었다. 바야흐로 쿠바 시민들이 누려야 할 시민권 보장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가톨릭 국가인 쿠바에서도 여타 다른 이웃 중남미 국가들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떠 오른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보장 논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 헌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패쇄적이었던 시민권 보장,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 확대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확대 등이 쿠바의 정치 변화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물론 경제적 개방개혁 정책과 맥을 같이 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시민사회 관점의 쿠바 정치변화 관찰은 국내 중남미 지역 연구자들의 관심보다는 유럽이나 영미권 혹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관점에서 쿠바 경제 개방과 개혁을 통한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비중 있는 연구(김원호·문남권 2015), 쿠바 상층부

정치 엘리트 집단의 움직임(쿠바 공산당, 군부 혹은 카스트로 정치 엘리트 집단 대상) 관찰을 통한 ‘제도적 리더십 구축과 쿠바 권력 엘리트의 변화(김기현 2017) 연구 등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중요성과 함께 쿠바 정치 변화 탐색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쿠바의 정치 변동 연구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러한 관계 변화를 추적해 보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 진다.

II. 쿠바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 탐색

베아 레아우드(Bea Reaud 2006)는 오랫동안 쿠바 시민사회를 연구해 온 학자로 쿠바 내 시민사회의 등장과 변화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활동 증가로 인한 향후 쿠바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는 쿠바 시민사회를 ‘국내, 국제 그리고 국내/국제 두 부문이 혼재한 혼합 부문인 3 영역’으로 나누워 고찰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펠리페 에두아르도 식스토(Felipe Eduardo Sixto 2005)의

관찰에서도 목격되듯이, 특히 2000년대 들어 쿠바 사회 내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비록 사회주의 국가 특장상 자율적 공공단체, 혹은 협회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쿠바 가톨릭종교, 예술가그룹, 지식인운동 그룹, 인터넷을 통한 자유언론 그룹들이 등장해 쿠바 내 인권과 언론의 자유 중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그룹들은 시민권 방어를 위해 쿠바 정부의 통제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쿠바 가톨릭 교회, 독립 저널리스트, 독립적 도서출판업자, 상공인 협회 그리고 심지어 쿠바 야구협회 등도 비록 파편적이지만 쿠바 내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다(2015). 쿠바의 인권 문제, 시민권 침해 등에 대한 국제연대 차원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들(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프리덤하우스)의 역할도 쿠바 정치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행위자들로 분석되고 있다.

III. 피델 카스트로 통치 시기 쿠바 시민사회 정체성

피델 카스트로 집권 시기 쿠바 시민사회는 상층부

엘리트 그룹에 대한 비판적 혹은 저항적 개념의 시민사회보다는 단순히 1959년 쿠바혁명 이데올로기의 전파자 혹은 수호자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동적 혹은 국가 정치적 동원 개념의 다양한 대중 조직들의 등장과 함께 목격되는 대표적인 그룹들은 1959년 쿠바혁명과 함께 조직되어 온 사회주의자 정당(Partido Socialista, 이후 카스트로의 ‘7월 26일 운동’으로 포함됨), 반-바티스타 학생그룹, 혁명지도부(Directoria Revolucionario 1965년에 공산당으로 포함), 쿠바 청년공산당 및 청년공산주의동맹(쿠바 헌법적 지위 획득과 나이 15세-65세 사이 쿠바 인구들 중 6분의 1이 참여), 쿠바노동자중앙동맹(미주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노조로 1939년 설립된 일명 CTC; 2006년 통계로 공식적인 13개에 달하는 쿠바노조 및 인구 330만에 8만개 사업장을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지방 및 공동체 차원의 그룹으로는 마을과 군 단위 이웃공동체들이 참여한 혁명방어위원회(Comites de Defensa de la Revolucion; CDRs)가 있었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감시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단위로 사회서비스(마을 거리청소

및 상호 보건)에도 활동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들 모든 대중 조직들에 쿠바 14세 이상 인구 약 85%가 참여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더하여 영세농업국가협회(Asociacion Nacional de Agricultores Pequeños; ANAP)는 약 15만 명의 영세농민들(50 에이커 이하 소유)이 참여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자시장을 형성해 지방농민 시장에서 농산물을 매매해 오고 있다. 쿠바여성동맹(Federacion de Mujeres Cubanas; FMC)의 경우는 회원으로 14세 이상 쿠바 여성들 80%가 참여 중인 대중 조직이다. 이외에도 1923년 결성된 대학생연맹(Federacion de Estudiantes Universitarios; FEU)은 회원으로 약 20만 명이 참여 중이며, 중등교육연맹(Federacion de Estudiantes de Enseñanza Media; FEEM)의 경우는 150만에 달하는 초등/중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 중이다(Bea Reaud 2006)²⁾. 쿠바 혁명과 더불어 이들 조직들은 쿠바를 대표하는 대중 조직들로 발전해 왔으며 쿠바혁명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쿠바 시민사회를 수동적으로 대표해

2) https://es.wikipedia.org/wiki/Federaci%C3%B3n_Estudiantil_Universitaria

왔다고 볼 수 있다(비독립적/비자발적).

물론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유를 대표해야 하는 다양한 언론매체 및 대중방송 등의 역할과 기능도 국가, 쿠바 공산당 및 쿠바 군부의 통제 하로 들어갔다.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대중 미디어에 대한 국가통제 시스템은 1976년 쿠바사회주의 헌법 제53조에 의해,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허용된, 특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기타 대중미디어 매체의 다양한 물질적 조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 매체들이 ‘사회 전체의 소유이지 개인적 소유는 아니다’로 명시될 정도로 국가통제 하에 있었다. Anaya(2014)에 의하면 결국 이러한 언론 통제는 2013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언론 매체의 국가 소유와 방송언론에 대한 국가검열 강화 그리고 저널리스트 스스로 자기검열 강화 방식은 쿠바의 언론통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다.³⁾

3) 아나야(Anaya)는 그의 논문 결론에서 2002-2013년 사이 쿠바 언론의 자유는 기존 정권들과 비교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언론통제 방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p.43).

IV. 2000년 쿠바 시민사회의 언론의 자유 및 인권 회복 저항 운동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위와 같은 정치적 동원 성격의 시민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사회 모임, 특히 정치적 사범들에 대한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EIU 2005)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국제기구와 연대 혹은 국제사회의 도움(USAID 등)을 받아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독립 저널리즘 운동인 ‘마누엘 마르케스 스텔링 (Manuel Marquez Sterling) 사회’,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인권운동 (Madres de Plaza de Mayo) 같은 비판적 시민저항 운동 그룹인 쿠바의 ‘백인여성운동’ 그룹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이사회 운동’ 그룹 등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시민연대 캠페인, 국제적 연대 및 인권 탄압 저항 대상은 오직 쿠바 정부뿐만 아니라 쿠바 국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변화’를 요구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⁴⁾

실질적으로 이들의 시민저항 활동은 “2003년 수많은 시민 활동가가 체포(75명)되는 등 쿠바 정부와 갈등을 낳았지만 활동은 점차 증가해 1997년 44번의 시민행동(거리행진, 집회 등)이 2004에는 약 1,800번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저항 활동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저항 운동에 대한 피델 카스트로 대응은 체포, 구금, 투옥으로 나타나 시민사회에 대한 독재적, 비민주적 혹은 경직적 정치적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Hoffmann 2016).⁵⁾

4) 예를 들어, 바레라 프로젝트(Proyecto Varela)는 ‘기독교자유운동(CLM) 출신의 펠릭스 바레라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1976년 쿠바헌법 제88조(1992년에 수정)에 규정된 집회 및 결사, 출판, 자유선거, 종교 자유, 사적 비즈니스 참여자유,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권 등에 대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일단 개혁을 위한 10,000명의 국민 청원을 받으려는 운동이었으나 국가의 통제와 탄압으로 결국 실패했다.

5) 독립 저널리즘 운동인 ‘마누엘 마르케스 스틸링(Manuel Marquez Sterling) 사회’ 운동은 쿠바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권과 연계한 대표적인 시민저항운동이다. 파리에 기반을 둔 국제 NGO 그룹인 ‘국경 없는 리포트(Reporteros Sin Fronteras)의 지원을 받은 이 저널리즘 운동은 ‘쿠바의 잡지(Revista De Cuba)’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었으며 2002년에 쿠바 사회가 고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제들 예를 들어, 정치개혁과 관련된 바레라 프로젝트(위 주석 4 참고), 인종차별주의, 빈곤 등을 이슈화해 총 250개의 원고를 발간했으나 국가의 검열과 통제로 2003년 폐간 당했다. 편집장인 알폰소(Alfonso)는 정부 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델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시민사회 그룹인 쿠바 가톨릭교회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쿠바혁명 이후 오랫동안 국가의 종속 하에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 ‘특별한 시기’ 경험과 그리고 1991년 개최된 제4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좀 더 자유롭게 시민사회에 참여를 허가 받았다.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던 특별한 시기 동안 쿠바 가톨릭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 쿠바 내에서 다양한 자선활동(교육, 빈곤구제 등)을 하는 등 가톨릭교회로서 순기능적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Caritas:자선). 이후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의 쿠바 방문과 더불어 쿠바 가톨릭교회에 대한 국가의 호의적 태도 변화 그리고 교황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지속된 무역과 통상금지 정책 비난 성명 등을 통해 다소 국가-가톨릭교회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⁶⁾

카스트로의 경직된 리더십은 시민 종교 단체들에게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권을 외치다 수감된 정치범들의 부인들이 모여 2002년 결성한 어머니기도 모임(교회 모임 및 남편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 활동 전개)인 ‘레오노르 페레스(Leonor Perez)’ 운동 활동가들도 2003년 5월 거리행진 당시 체포되었다.

6) 제264대 로마교황(1978-2005) 역임.

쿠바 가톨릭교회의 그때까지 정치경제적 입장은 쿠바 시민들 개인의 권리를 확대한 시장 민주주의 실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델 카스트로의 경직된 리더십과 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교회의 대립각은 결과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교육사업(학교 건설), 새로운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건설 등 쿠바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사업들이 불허되기도 했다.

V. 라울 및 Post-라울 시기 정보화 시대 및 사이버 시민사회 등장

이러한 쿠바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에 대한 관찰은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정 특히 1996년 이후 쿠바가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적 변화(예를 들어, 인터넷의 사회적 수용)를 시대적 변화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졌다.⁷⁾

7) 국가 주권 보호를 이유로 쿠바는 그동안 미국 지원 라디오 혹은 다양한 영상 미디어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심지어 1990년대 초반 쿠바 정부는 ‘인터넷’ 조차 쿠바 혁명을 전복시키려는 제국주의적 무기로 간주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

호프만(2016)에 의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호프만은 이를 ‘디지털 시티즌 미디어; digital citizen media’라는 용어를 사용)으로서 쿠바에서 인터넷의 보급(비록 아직도 보편적 수준은 아니지만)은 쿠바 시민사회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⁸⁾ 예를 들어, 2007년 디지털 논쟁(polémica digital) 혹은 ‘이메일 전쟁(guerra de los emails)’으로 언급된 바 있는 쿠바의 ‘디지털 혁명’(Laura-Zoë Humphreys 2012) 시대로의 진입 혹은 ‘사이버민주주의’ 발아점이 된 사건은 쿠바식 사이버 시민사회 태동에 전환점이 되었다. 설명하자면, 1970년대 쿠바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검열을 담당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독점적이면서 국가-시민사회 간 소통부재라는 정치문화 형성에 실질 정책을 담당했던 유력 인물 - 1971-76년 사이 국가문화자문위원회

8) 2012년 쿠바 정부 공식 통계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약 23%로(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s 2012 통계)로 이들의 인터넷 서비스(이메일)도 쿠바 국내 서비스 Red Cuba(쿠바 망) 혹은 국가 인트라 넷(intra-net)으로 연결되었다. 이들 중에 단지 5%만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 접근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직장이나 학교, 호텔, 혹은 블랙마켓을 통해 접근이 가능했다(Freedom House 2012) 그리고, Ted A. Henken and Sjamme van de Voort(2014), p. 3 재인용.

(Consejo Nacional de Cultura)의 위원장이었던 빠본(Pavón) - 의 쿠바 국영텔레비전 방송 출연에 대한 쿠바 시민사회의 비판적 저항(‘또 다른 암흑시대’ 재현 및 다시 쿠바 지식인의 자유로운 사상 표현 통제에 대해 우려/비판하는 내용들)이 쿠바 내의 예술가, 지식인들(호르헤 앙헬 페레즈; Jorge Ángel Pérez 선두) 사이에 이메일로 회람되기 시작해 자유로운 언론 추구는 물론 사이버 상의 시민 활동을 허용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Laura-Zoë Humphreys 2012).

2018년 현재 여전히 쿠바의 언론 자유는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민간/독립 언론 활동은 ‘불법’이며 ‘적의 선전’ 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몇몇 국영 미디어들도 그동안 금기 되었던 의료나 교육 부문에서 국가 관료들의 부패 사건들을 기사 내용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쿠바의 가톨릭교회도 공개적인 내용으로 쿠바의 정치변화 및 정치적 논쟁들을 다루기 시작했다(Freedom House 2016).⁹⁾

동시에 쿠바의 사이버 시민사회는 다양한 블로그(Blogger) 활동(밴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국가언론 통제방식에 도전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3년 인터넷 밴드(쿠바 음악가들의 공동모임 Interactivo) 리더이자 작곡가 겸 음악가인 로베르티코 카르카세스(Robertico Carcassés)는 쿠바 정치개혁의 하나로 정치 엘리트(대통령)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직선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쿠바 정부에 의해 그의 공공 및 사적 활동들이 금지를 당했지만 이런 방식의 문화 통제에 대해 쿠바 시민사회(특히 쿠바 음악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¹⁰⁾ 최근에는 쿠바의 경제개혁과

9)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성사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준 교황 Francis의 2015년 9월 쿠바 방문과 더불어 쿠바 가톨릭교회(중요한 시민사회의 하나)는 새로운 교회건설 가능 그리고 가톨릭교회 독립적 출판물의 자유로운 인쇄 및 배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프리덤 하우스 2016: 4). 예를 들어 2012년 교황 Benedict XVI의 쿠바 아바나 방문과 함께 쿠바 가톨릭교회 대주교인 하이메 오르테가(Jaime Ortega)는 라울 정부로부터 종교 활동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얻어 "Espacio Laical(무신론자 공간)", "Palabra Nueva(새로운 말씀)" 등의 잡지를 발간 배포하기 시작했다(Flávia Marreiro 2014: 13).

10) 대표적인 쿠바 내 시민사회 그룹 혹은 개인들이 참여 중인 다양한 블로그 활동에

정치참여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 의견과 논쟁 이슈들을 ‘Cuba Posible(블로그 리더로 Veiga와 González를 주목)’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통해 쿠바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 정치적 자유권 변화, 사회권 향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지속해 오고 있기도 하다.¹¹⁾

인터넷 및 사이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접근 비용이나 전송 속도 및 정보량의 문제는 쿠바 사이버 민주주의 발전에서 여전히 큰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장애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에 전달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혹은 여론, 특히 정부비판, 정치개혁추구 등의 정보나 내용에 대해 국가검열이나

대해서는 <https://havana-club.com/en-ww/havana-cultura>, <https://www.bimhuis.nl/en/gigs/interactivo/> 등을 참고(접속일 2017년 11월 22일). 또한 호프만이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2014년 쿠바 블로그 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들로는 개방된 온라인 사이트만 약 2,900개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2016: 1734). 특히 쿠바 독립 저널리스트인 엘라인에 디아즈(Elaine Diaz)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은 <https://www.youtube.com/watch?v=lXvoWSZ5Uqg> 그리고 그녀의 ‘바리오 저널(Periodismo de Barrio)’ 트위터 활동: <https://twitter.com/elainediaz2003> 참고.

11) <https://cubapossible.com/> 혹은 <https://cubapossible.com/nota-de-prensa/>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쿠바의 정치경제적 개혁 이슈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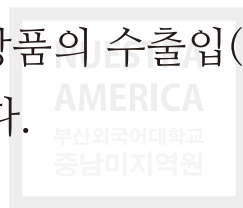
통제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이데올로기인 쿠바혁명에 반하는 혹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폐쇄나 사이트에 대한 통제는 지속적이다. 이미 정부에 의해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블로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아니 산체스(Yoani Sánchez)’가 운영 중인 ‘Y세대(Generation Y)’이다.¹²⁾

2013년 쿠바는 기존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나 여행 그리고 이민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Consejo de Estado, Decreto-Ley No. 302). 그동안 미국의 경제 재제가 지속되고 그리고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유지되었던 기존의 쿠바 이민법은 쿠바를 떠나는 쿠바 시민을 ‘확실한 퇴장(salida definitiva)’으로 인식했다(국적상실).

12) <https://generacionyen.wordpress.com/> 또한 ‘14ymedio’ 사이트는 쿠바 최초의 독립적 디지털 미디어로 2014년 5월 블로그 활동가인 Yoani Sánchez와 저널리스트인 Reinaldo Escobar에 의해 오픈되었다. 12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해 국내정치, 국제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스포츠 세션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http://www.14ymedio.com/>참고.

하지만 2013년 이민법은 이를 완화한 혹은 라울 카스트로 시대에 들어 이행되기 시작한 경제 개방과 개혁 조치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1) 국가나 정부 기관의 허가 없이 해외 이민을 가능하게 했으며; 2) 해외 체류 기간도 기존 11개월에서 2배인 24개월로 연장하는가 하면; 3) 장기간 여행과 귀국 이후 따로 특별한 수속을 밟지 않아도(기존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수속을 밟지 않으면 영원히 쿠바를 떠난 것으로 간주) 쉽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특별 조항으로 고위공직자, 운동선수, 기술자 혹은 의사 등 해외이주가 제한되는(예를 들어, vital importance 비자) 경우는 여전히 있다. 이와 같은 2013년 이민법 개정 조치들은 사실 미국-쿠바 사이 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미국의 ‘쿠바 적응법(Cuban Adjustment Act)’ 그리고 ‘젖은발 마른발 정책(wet foot, dry foot policy)’에 대한 외교적 저항 개념에서 한 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쿠바 시민들의 이주/이동의 자유를 확대한 이민정책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¹³⁾

이는 동시에 미국-쿠바 사이 자유로운 이민/이주를 통해 미국 내의 쿠바 이민공동체(플로리다 특히 Miami-Dade 지역에 거의 70% 거주)와의 가족 유대(-family tie) 채널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경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듬해인 2014년 외국인투자법 개혁을 통해 경제적 개방/개혁을 더욱 확대하려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좀 더 자유로운 이민법 개정의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영업의 확대, 부동산 매매 증가, 다양한 상품의 수출입(무역) 증가, 해외투자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이든 쿠바이든 관계없이 경계(국경)를 개방하면서 발생하는 쿠바공동체 사이 유대강화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과 해외투자 개방을 통한 개혁/개방 정책의 확대와 함께 그동안 경직된 국가-시민사회

13) 미국의 영토, 즉 육지에 도착한 사람에게만 미국 영주권 혜택을 주고 해상에서 체포돼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한 사람들은 곧 바로 쿠바로 송환되었다. 하지만 쿠바는 지난 1990년대 쿠바 해상난민 사태 당시 미국과의 임시 협약에 의해 쿠바를 떠난 사람의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관계도 변화가 목격된다. 일종의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 혹은 직접적 통제가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의 관료주의적 요소(관료주의적 정치 리더십)가 점차 사라지고 동시에 많은 쿠바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국제적 활동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 참석, 해외유학 증가, 해외일자리 기회증가 - 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시민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다소 포용적 사회로의 변화도 예견된다.

VI. 결론: 쿠바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 및 자율적 시민사회 확대와 정치 변화

결론적으로 쿠바의 정치적 리더십 변화는 2018년 카스트로 가문의 퇴각과 2021년 개최 예정인 제8차 공산당 대회 사이에 ‘중대한 시점’ (critical juncture, Vegard Bye 2017)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스트로’ 가문의 퇴진과 쿠바 혁명에 기반한 리더십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점차 공산당 중심 혹은 행정 관료 중심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재편되고 있다. 본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관찰한 국가-시민사회 간 변화는

쿠바 미래 정치변화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여전히 통제적인 국가주의 그리고 변화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쿠바 시민사회의 반응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참여와 비판 부문에서 그리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개방과 개혁, 특히 2018년 헌법 개정과 시민권의 확대 조치 등을 통해 좀 더 ‘비판적’, ‘독립적’, ‘자율적’ 정체성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 시민사회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의 경제적 의미

권기수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2018년 5월 25일. 마침내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은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이하 TA) 협상 선언을 개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순방 시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한지 꼬박 14년만이다. 협상 개시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양측 간 TA 결과에 거는 경제적 기대도 크다.

먼저 한-MERCOSUR TA는 시장 다각화 모색을 위한 공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한국은 양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의 사드 여파로 시장 다변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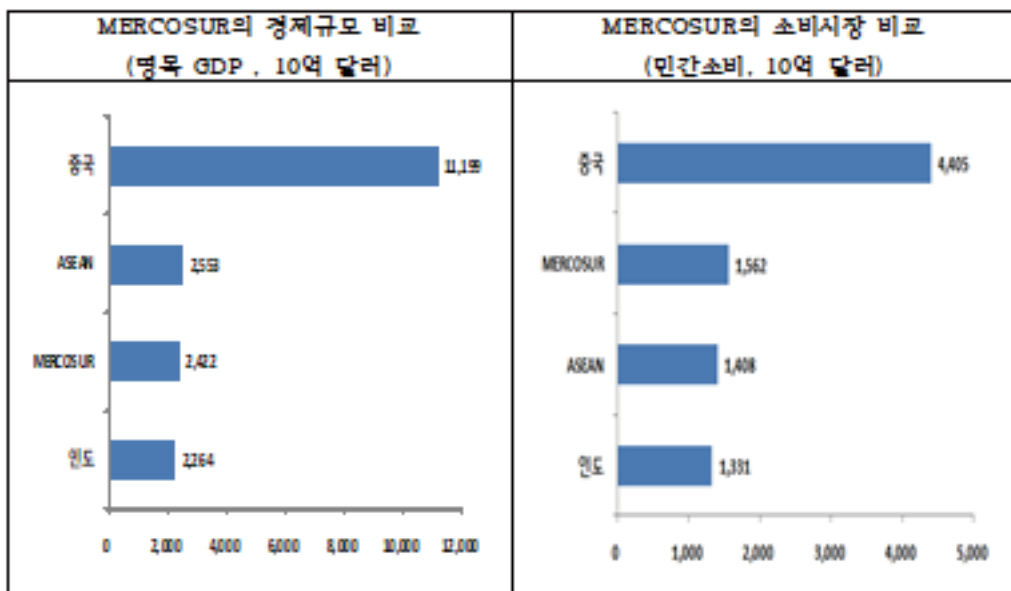
대 MERCOSUR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MERCOSUR의 수출 비중(총수출대비)이 2.4%(2011년)에서 1.2%(2017년)로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으로서 실추된 위상을 되찾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MERCOSUR TA는 ASEAN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신흥 소비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MERCOSUR의 경제규모(명목 GDP)는 최근 통화가치 급락으로 우리의 주력시장인 ASEAN에 다소 뒤지지만 소비시장 규모(1.6조 달러)는 ASEAN을 능가한다. 방대한 소비시장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전 세계 경제통합체 중 가장 폐쇄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GDP대비 수입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12.9%에 불과하다. 시장의 폐쇄성(GDP대비 수입 비중 기준) 측면에서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 1위, 아르헨티나는 3위다. 폐쇄성이 높은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선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MERCOSUR가 중남미 이외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사례가 거의 없어 그 효과가 더욱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첫 TA 대상국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MERCOSUR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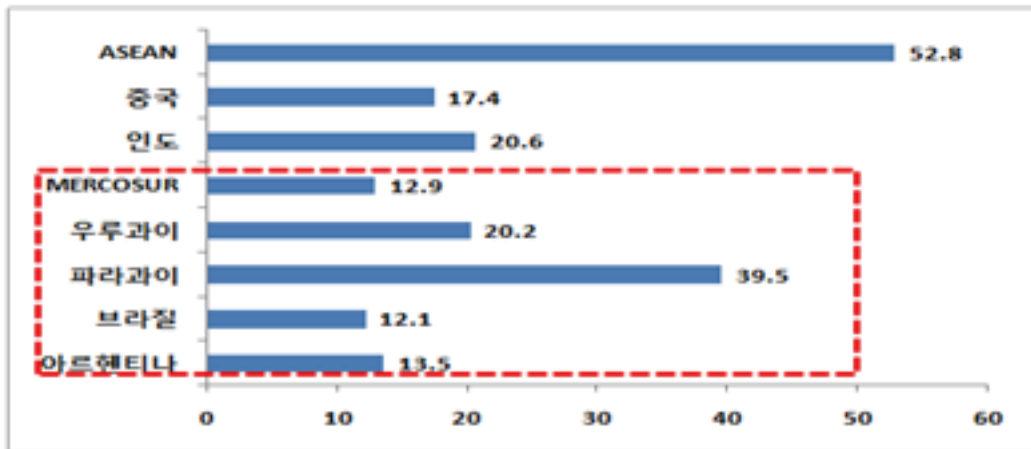
공동연구 결과도 이러한 기대감에 힘을 보탠다. TA가 체결될 경우 전자제품, 기계류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시장 이외 정부조달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MERCOSUR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한다. MERCOSUR 회원국들이 WTO

MERCOSUR 소비시장 규모 비교(2016년 기준)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MERCOSUR의 수입 비중 비교
(2016년 기준, GDP대비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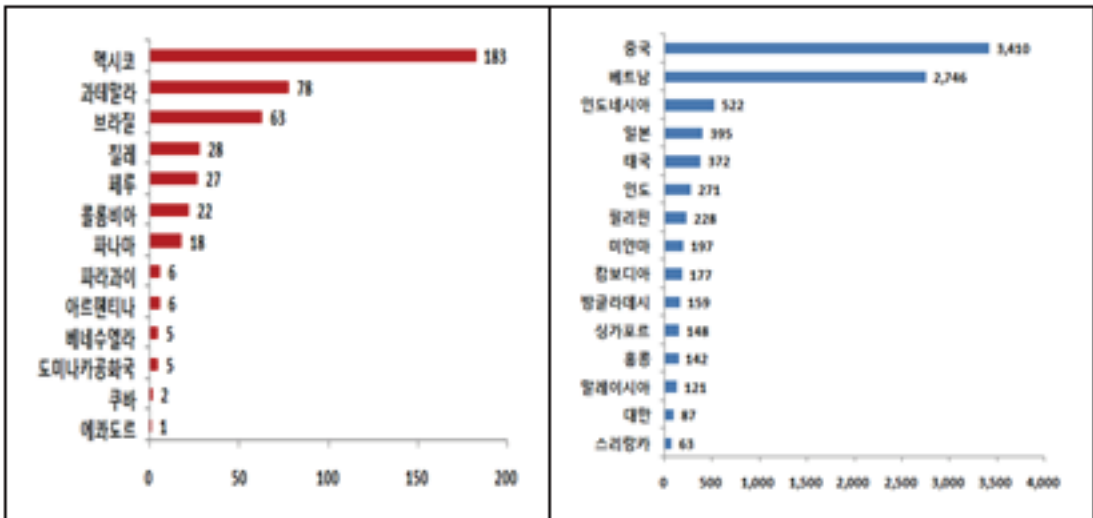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어서 그간 우리기업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TA를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공기업까지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할 경우 그 비즈니스 기회는 막대할 전망이다.

셋째, 한-MERCOSUR TA는 그간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진출을 기피해왔던 우리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TA가 한국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우리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은 수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브라질 투자 진출 기업 수는 멕시코의 1/3, 브릭스 국가인 인도의 1/5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진출 업체는 고작 6개다. 수출 기업의 수도 크게 미흡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은 전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해외진출 한국 업체 수 현황(2016년 기준)



자료: KOTRA 해외진출기업리얼토리

넷째, 그간 공백지(missing link)로 남아 있던 남미지역을 우리의 경제영토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주지역 대부분을 FTA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가동하고 있으며 2018년 2월에는 중미 5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과 FTA에 서명했다. 현재 태평양동맹(PA)을 포함한 멕시코와도 FTA 협상을 논의 중이다. 만약 MERCOSUR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와 단일 통합시장을 구축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중남미의 가교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실하게 굳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남미 국가와 가장 많은 FTA를 체결했으며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ERCOSUR와의 TA는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MERCOSUR TA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의미는 대단히 크다. 특히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시장 다각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MERCOSUR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MERCOSUR를 협상 무대로 끌어들이는데 14년이나 걸린 만큼 향후 양자 간의 TA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산품과 농산품 개방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20년째 협상을 끌어오고 있는 EU의 경우처럼 협상이 장기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협상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TA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파울루 프레이리(Paulo Reglus Neves Freire)

양은미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페다고지〉〉. 세계가 ‘파울루 프레이리’라는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한 그의 대표작이다. 〈〈자유의 교육학〉〉, 〈〈문해교육〉〉, 〈〈희망의 교육학〉〉, 〈〈교육과 의식화〉〉,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등 그가 남긴 수많은 책들 중 유독 내용도 형식도 모호함이라고는 없는 제목의 이 책이 파울루 프레이리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혹은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파울루 프레이리라는 사람을 선입견 없이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긴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페다고지〉〉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그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기회도 열리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1921년부터 1997년, 격변의 시기를 살았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에 도입되면서 소위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분배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1921년 9월 19일 브라질 뻘르낭부꾸 주 헤시피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사탕수수 재배가 근간이 되던 이 지역 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사탕수수 경쟁력의 상실로 대책 없이 무너지면서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된 뻘르낭부꾸에서 가난한 중산층으로 자란 그의 경험은 그의 교육가로서의 삶과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세계 시민이기 이전에 브라질 시민, 그리고 그 전에 뻘르낭부꾸 시민”이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뻘르낭부꾸는 프레이리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까지, 문해교육과 함께한 50년

프레이리는 헤시피 법과대학에 진학 전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포르투갈어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말한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교육가, 즉 교육의

정치성은 불가피하다는 신념을 실천했던 교육가로서의 인생은 1947년 SESI(산업사회국)¹⁾에 몸담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를 시작으로 그의 교육가로서의 인생은 그가 활동했던 공간으로 보나 그의 교육철학과 실천 양상으로 보나 크게 3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브라질에서 문해교육의 주역으로 활동하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고 그가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1947년부터 1964년까지, 망명자의 신분으로 볼리비아와 칠레, 스위스에 거주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해교육을 실천한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이후 브라질로 돌아와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고자 힘쓰다 생을 마친 1997년까지가 그것이다.

정부기관이었던 SESI에 몸담았던 10년은 프레이리에게 브라질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1) Serviço Social da Indústria의 약자로 1946년 전국산업연맹이 창설. 공식적으로는 브라질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처한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노동자들에게 보건위생 및 교육 원조를 제공이 목적.

체계적 경험을 허락한 시간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에게 허구적 관용을 베풀며 후자의 사회 - 특히 정치 - 참여를 억누르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SESI의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후 SESI를 나와 성인 문해교육에 힘쓰던 프레이리를 세계가 주목하게 만든 사건은 “앙지꾸스의 40시간”으로 알려진 문해 프로젝트였다. 1963년 4월 북부의 앙지꾸스Angi-cos에서 40일에 걸쳐 40시간 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명의 성인들이 글을 깨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문해 프로젝트는 당시 주아웅 굴라르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적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1964년 군사쿠데타와 함께 파울루 프레이리는 체제 전복 모의로 체포되고 만다. 프레이리가 믿고 실천한 세계 읽기로서의 글 읽기는 기존의 보수세력에게나 군부에게나 위협하기는 매한가지였고, 더욱이 군부에게 그 같은 ‘공산주의적’ 행보는 위협적 요소였다.

두 차례의 감금 후 망명을 제안 받은, 혹은 강요 당한 그에게 최초 손을 내민 나라는 볼리비아였으나 몇 달의

체류 후 결국 칠레에 동지를 틀었다. 브라질에서 실천에 주력했던 프레이리에게 칠레는 학문적 발전과 칠레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 곳이었다. 도착 거의 직후부터 그는 하께스 촌출이 소장으로 있던 농축산업발전연구소에 합류하여 칠레의 농업개혁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다시 한번 억압자-피억압자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페다고지>>가 집필된 것도 이 시기였다. <<페다고지>>는 억압 현실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해방을 위한 교육을 통한 인간 해방을 에두르지 않고 말한다. 1969년 완성된 이 책의 최초 출판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후 수많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는 동안에도 1975년이 되기까지 원본인 포르투갈어본만은 출판될 수 없었다. 검열과 금지는 칠레에서도 프레이리의 등을 떠밀었다. 칠레의 기독교민주당과 에두아르도 프레이 정권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학문의 조국이라 여긴 칠레마저도 떠날 결심을 한다.

칠레를 떠나 1년간 하버드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을 마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스위스의세계교회협의회였다.

스위스는 그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교육부서
자문관으로서 제3세계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특히 탄자니아,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앙골라 등의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그간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라는 맥락만 가지고 있던 그에게 크나큰
도전이였다. 실제 그가 개입하고 주도한 모든 교육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중 <<Paulo Freire: Cartas à Guiné-Bis-
sau>>(기니비사우에 쓰는 편지)에도 기록된
기니비사우에서의 문맹퇴치캠페인은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눈에는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경험을 프레이리의 실패로
보기에는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모순이 너무나도
컸다. 다양한 부족어나 크리올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억압자의 언어 포르투갈어로 문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교육 대상자에게도, 글 읽기를 세계 읽기와
동일시하며 궁극적으로 피억압자 자신이 억압 현실을
깨닫고 변혁 의지를 갖기를 원했던 프레이리에게도
명백한 모순이었다. 또한 이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했던 이들이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깨지 못한 한계였다. 변혁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 읽기를 해내지 못하는 이 같은 한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현 가능한 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외친 프레이리의 시선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주도의 대안사회운동을 이해하려는 꿈틀거림도 느낄 수 있다.

1979년 프레이리는 망명자의 신분임에도 크나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떠날 때마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준 스위스에서 브라질로 돌아갈 결심을 굳힌다. 브라질 정부의 저항과 치졸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로 프레이리는 상파울로대학교와 캉빠나스대학교에서의 교수로 브라질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귀국 자체도 의미있었지만, 실제 다시 돌아온 브라질에서 그의 교육자 인생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1986년 아내의 죽음과 침체기를 거쳐 그는 두 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88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한 것과 89년 상파울루시 교육감이 된 것이었다.

기존에 노동자,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에 주력했다면, 이후 91년까지는 그와 함께 유치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상파울로시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교육의 중립은 허구 = 교육의 정치성은 불가피한 것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는 프레이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심기 불편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존의 교육, 특히 공교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향한 ‘(진정한) 교육은 절대 중립적일 수 없다’, ‘교육에서의 중립은 허구이다’라는 정면 반박은 그야말로 곤란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시비를 왈가왈부 가릴 필요가 있을까. 교육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교육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도 분명히 정립될 것이다. 다만 프레이리의 이 말만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립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을 사는

편한 방식이 아니라면, 어쩌면 불의를 고발할 것이냐 혹은 두려워할 것이냐 사이에서의 나의 선택을 숨기는 위선적인 방편일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곧 교육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표현한 것이다. 프레이리에게 교육은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고, 그 변혁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과 세계에 대해 어떤 관점,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프레이리가 이해하는 ‘정치’의 가장 왜곡 없는 정의였다.

파울루 프레이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997년 프레이리는 상파울루시의 아인슈타인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009년 룰라 집권 하의 브라질 연방정부는 파울루 프레이리에 대해 정치 사면 판결을 내린다. 과거 ‘추방 조치 해제’를 의미했던 소극적 의미의 사면 이후 근 30년 만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프레이리의 유가족에게 과오를 사과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노동당

집권 시기 보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브라질 사회 전체의 프레이리를 향한 시선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사후에도 브라질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의 이름과 저서는 활발히 소비되고 있고 그의 진보적 사고에 대한 입장은 호불호가 극명히 나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그러한 소비에는 의도적 불균형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본질적인 왜곡은 프레이리 교육철학과 실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정치성의 거세로, 그의 문해교육 프로젝트를 단순히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다. 또한 프레이리의 영향력은, 그의 딸 파치마도 지적하듯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기관보다는 대중운동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프레이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는 자신이 마르크스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이 둘의 공통분모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주의자’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시점 파울루 프레이리를 다시 기억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 기억은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아닌 그 자신의 글을 읽음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자가 오늘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존재하나요?”

“아직은.”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내 후손들의 미래가 아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것은
약간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많은 것들이다.

파울로 프레이리,

〈〈Paulo Freire: uma biobibliografia(파울로 프레이리: 그의 삶과 저작)〉〉에서



맨발로 땅에 앉아 왼손에는 장미꽃을, 오른손에는 머리를 괴고 책에 기대고 있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모습. 캉삐나스시 교육부 CEFORTEPE(Centro de Formação, Tecnologia e Pesquisa Educacional) 건물, 2008년 루이스 까를루스 까뻬라누 작.

베네수엘라, 마두로 재집권의 의미

황의승 (대구가톨릭 대학교, 전 칠레 대사)

2018년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연이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치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한 해가 될 듯 하다. 2017년말 칠레,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멕시코까지 7개국에서 선거가 치루어졌고, 마지막으로 10월 브라질 대선을 남겨두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3년 시작되어 10여간 지속된 자원붐이 끝나고 2014년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좌파물결이 한 걸음 물러나고 지역 전체적으로 정권의 성향이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슈퍼 선거 사이클에서는 좌우이념보다 사회정의 논쟁과 부패 스캔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2018년 선거사이클이 특히 많은 관심을 모우고 있는 것은 대개의 국가에서 좌우세력간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부패, 치안, 경제난 등 민생과 관련된 경제, 사회관련 현안들이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되면서 중남미 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이와 같은 정치 흐름속에서 베네수엘라에서도 지난 5.20 대선이 실시되었고 예상대로 마두로 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선거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예외적 경우였다. 이번 대선은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무리하게 앞당겨 실시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공격을 받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투표율도 46%에 머무르는 등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남겼다. 금년도 베네수엘라 대선은 이처럼 마두로의 당선에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졌던만큼 투표보다는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국내외의

관심이 맞추어진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면초가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의 강도는 높아지고 미국,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마두로 정부의 해결책은 억압적인 방법이었다. 2015.12월 의회선거에서 패배하자 지난 해 친정부세력으로 구성된 제헌의회를 최고헌법기관으로 만드는 변칙을 사용했고, 야권의 탄핵시도를 봉쇄하고 2016년 이후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으며, 군부의 지지를 다짐으로써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베스 이념 지지파와 반대세력간의 진영대립은 격화되었다.

사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출발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시작하였고 현재 겪고있는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마두로는 차베스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한데다 집권하자마자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가 뒤따랐다. 자원붐시대 고유가에 의한 사상

최대의 국가수입을 바탕으로 차베스는 국내에서 대규모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쿠바 등 다른 좌파국가들까지 지원하면서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를 내걸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유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산업은 후퇴하였는데 재정낭비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2014년 하반기이후 유가가 곤두박질치자 위기는 바로 찾아왔다. 그런데도 마두로는 차베스의 후계자로서 국유화, 외환 및 가격통제, 무상복지 등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경제위기속에서 정부의 개입을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그 결과는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위기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희생을 필요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야하지만 현재는 마두로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이러한 해결책이 어려운데다 그러한 정책변화를 추진할 의사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재집권을 실현하고 군부와 폭력에 의존하는 독재권력으로 흐르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이 이를 말해준다.

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는 독일과 소득수준이 비슷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자원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의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극적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경제가 위험해지면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았는데 요즘에는 아르헨티나 대신 국가몰락의 예로서 베네수엘라가 더 자주 거론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으로 2025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개발 및 시설유지 투자부족으로인해 석유생산이 2012년 실적의 절반에 불과한 1일 150만 배럴로 감소하였고 단기간에 생산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과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생산이 회복되지 않고는 경제회복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위기 상황은 지속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억압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독재정권이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베네수엘라 문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남미 14개국으로 구성된 리마 그룹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쿠바, 볼리비아 등 강경좌파 국가들은 마두로 좌파정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지역내 좌우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붕괴는 남미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2015년 이래 발생한 200만명에 달하는 난민사태는 여러 나라에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두로 정권이 초래한 또하나의 문제는 지역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위협이다. 80년대 이후 민주화는 과거 혁명과 정치불안으로 얼룩졌던 중남미의 정치지형을 크게 바꾸어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90년대말 이후 좌파물결, 21세기초 자원붐과 경제호황 등 여러 가지 여건도 정치발전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민주주의 추세에 균열이 생기면서 독재로의 회귀 위험성을 보이는 정권들이 나타났다. 마두로 정권의 억압적 체제 강화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있다. 이외에도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에서 장기 집권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부국가에서의 독재권력 구축은 그간 진행되어온 중남미의 민주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역내 좌파 세력에 충격을 주었다. 90년대말 이후 핑크 타이드를 선도해온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와 정권 독재화는 좌파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급진 좌파정책의 문제점과 약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을 초래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가 자신의

경제난으로 인해 그동안 강경좌파국가들에게 제공해온 대규모 경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하는 처지가 됨에 따라 쿠바, 니카라과 등 수혜국가들은 함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90년대 소련붕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쿠바는 베네수엘라 위기로 제 2의 경제난을 염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부는 재정난을 극복하기위해 지난 4월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유혈시위가 시작되어 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두로 정권의 연장은 범지역적인 민주화시대에도 다수 국민의 불만을 무력으로 누르고 억압적인 권력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14개국의 리마그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강력히 저항하고있어 마두로 정권을 둘러싼 지역내 좌우세력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니카라과 역시 전국적인 유혈시위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간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중남미에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좌우 이념을 떠나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요구에 저항하여 억압적인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재선되어 현 상태대로 정권을 유지하게 된 것은 베네수엘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내외의 저항과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 역시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타격이 쌓여 내상이 깊어지고 그만큼 정치, 경제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떠오르는 중남미지역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여하한 방식으로든 대화와 화합에 의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될 것이다.

Zona Cero :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 현장

장정윤 (과테말라 한인회 홍보부장)

1. 1974년 이후 과테말라 최대 규모의 화산폭발

지난 6월 3일 (일요일), 한인들이 모여 사는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푸에고 화산(Volcán de Fuego)이 약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다.

낮 12시경부터 분화하기 시작해, 최고 해발 6천 미터의 화산재를 뿜어내며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약 3시간에 걸쳐 막대한 양의 화산재와 가스, 암석 등이 분출되었다. 이들 물질이 뒤섞인 화산쇄설류(piroclastico)가 빠른 속도로 화산 인근의 3개 주(Escuintla주, Sacatepequez주, Chimaltenango주) 를 덮쳤다. 특히

화산 남서쪽에 있는 San Miguel Los Lotus 마을, El Rodeo 마을, La Reunion 리조트 등을 덮치며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화산은 과테말라 서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속하며 중미 34개 화산 가운데 왕성한 지각활동을 보이는 3개 화산 중 하나로, 정상 해발고도는 3천763m에 달한다.

이날 화산의 폭발로 인근 지역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운 상태가 되었으며, 폭발과 함께 바위와 재, 유독 가스 등이 화산재와 화산쇄설류 등이 인근 마을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안티과(Antigua) 지역을 비롯한 시내 일부 지역까지 화산재가 덮였다. 국도가 차단되었으며 수많은 가옥과 건물들이 땅에 묻혔다.

이번 폭발에 따른 피해가 훨씬 컸던 것은 하와이의 칼라우에 화산 같은경우는 분출물이 주로 용암으로 지표면을 타고 천천히 흐르는 데 반해, 푸에고 화산은



용암보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암석 등이 섞인 화산쇄설류가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시속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화산의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화산 아래쪽에 있는 San Miguel Los -

Lotus 마을의 경우 마을 전체가 완전히 화산재와 암석 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으며, 분화구로부터 14Km 떨어진 El Rodeo 마을에까지 큰 손해를 입었다.



2. 피해 상황

7월18일 과테말라 국가재난관리청(CORNED)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최소 121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사망자 중 85명만의 신원이 확인됐다.

실종자 수는 33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실제 실종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2,82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3,613명이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로 마련한 18개의 대피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고, 가옥은 186채가 완파되고 750채가 위험상태에 놓여 있으며 Antigua 시와 Escuintla 시를 연결하는 14번 국도(Ruth national 14)가 크게 파손되어 폐쇄되었다.

많은 수의 커피 농장과 농가들이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데, 과테말라 정부와 UN 남미 카리브 해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 피해액은 무려 2억1900만 달러(한화 약 2,4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고, 약 2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3. 피해를 키운 당국

한발 늦게 발령된 경보로 대피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가재난관리청(CORNED)은 일요일 오전 약한 화산 폭발 이후, 더 이상의 화산 활동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피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보를 발표했다. 만약 이 때 재난을 예상하고 대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하루 전인 토요일에도 폭발의 징후를 보였으나, 이를 크고작은 분출을 해왔던 활화산의 일상적인 패턴으로만 여긴 것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당국 책임자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더 큰 잘못은 애초부터 사람이 살기에 위험한 그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거주해왔던 것이다. 활화산 기슭과 그 근처에 공동체가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에서 마을 이루고 생활을 해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푸에고 화산의 폭발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국도 주민들도 거주를 묵인하고 위험을 방치한 채 삶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 구호 및 실종자 수색작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현장 수색작업은 지속적인 화산 분화의 위험, 엄청난 화산퇴적물과 잦은 비,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는데, 재난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국은 현장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신 수습작업을 중단했다. 국가가 현장 구호 및 실종자 수색작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민간구호단체나 피해자인 실종자의 가족이 스스로 나서서 실종자를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 및 외교부장관, 재난방지청장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는 지미 모랄레스(- Jimmy Morales) 대통령의 정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산폭발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4. 도움의 손길, 한인도 동참

내가 화산이 폭발한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과테말라 한인회의 단체 문자를 통해서였다. 이후

한인회는 수시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한인이 함께 피해 지역을 돕자는 의견을 올렸는데, 큰 호응을 얻어 크고 작은 한인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이름으로 십시일반 모금이 이어졌다.

1주일도 안 되어 모금된 \$11,000의 성금과 \$3,000 상당의 구호물품은 1차로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알로테낭고 (Alotenango) 지역에 신속히 전달되었고, 이어서 추후에 꾸준히 모금된 \$15,000의 성금과 \$5,000상당의 구호물품도 6월 29일 2차로 전달되었다. 또한 가옥이 화산재로 덮이는 피해를 본 한-과테말라 다문화가정 2곳을 돕기 위해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천 400달러의 성금과 구호 식량·의류 등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루이스 마로깁 (José Luis Marroquí Panal) 시장은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가운데 처음으로 성금을 보내준 한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과 재해복구에 유익하게 쓰겠다”고 전했다.

곧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하였고, 월드쉐어 과테말라지회, 한인교회, NGO 등 민간단체들도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음식, 물, 위생용품 등과 구호 자금을 긴급 지원했고, 이스라엘은 부상자 치료를 돕기 위해 화상·폐·성형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 의료팀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5. 죽음의 땅, 이어지는 삶

과테말라에서는 과거에도 홍수 등으로 인한 대규모 매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는 시신 발굴작업 등을 중단하고 그 지역 전체를 묘지로 선포한다. 그런 전례를 따라, 지난 6월 26일 국가재난관리청(CORNED)는 수도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Escuintla 남쪽 San Miguel Los Lotus와 El Rodeo 지역을 집단 묘지 및 거주 불가능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후 생존 주민들의 재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집을 잃은 이재민 약 2,900명은 알베르게(Albergue)라고 불리는 15개 임시보호소(학교, 교회나 주민 센터 등)에 분산되어 머무는 상태이다. 이들은 보통 어린이가 있는 가족과 없는 경우로 나뉘어져 지내는데, 덥고 좁은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먹고 자는 상황이다.

이들은 조만간 임시 목조 주택으로 옮겼다가 시에서 마련할 영구 주택으로 다시 이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호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친척 집이나 작은 교회 등에서 머물어 통계에서도 누락된 이재민 또한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가족들은 자신의 부엌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이에 Escuintla의 교육부는 약 1,000명의 보호소 학생에게 임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1,000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향해야 할지도 모른다.

서성철(徐聖哲) 선생 전(傳)

김세건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성철이 형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부산외대 중남미연구소 이태혁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을 추모하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살며시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추억의 저편 너머로 순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떠올랐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왜 갑작스레 귀천이 떠올랐을까? 천상병 시인과 성철이 형이 순간적으로 겹쳐져 올 만큼 그리 닮은꼴은 아니다. 시나 글을 통해서만 접했을 뿐 어떤 일면식도 없는 천상병 시인을 들먹여 형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을 나온 듯 얼굴 가득히 번지는 두 분의 해맑은 웃음은 서로 닮았다.

형에게 이승의 세상살이는 아름다운 소풍이었을까?

성철이 형과의 인연은 1996년 멕시코 유학시절로 돌아간다. 아베체데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멕시코 땅에 떨어진 나는 모든 것이 어설픈 초짜 유학생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유학생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내 학문과 삶의 자양분이었다. 그 중심에 성철이 형이 있었다.

형은 나의 스승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 멕시코로 건너왔다는 늦깎이 문학도는 사람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 국립멕시코자치대학교의 광활한 식물원에서, 인문대의 카페에서, 잔디밭에서, 책방에서, 시내에서 그리고 집에서, 문학을, 사회문화를, 사람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귀동냥만으로도 큰 공부였다. 나는 그렇게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형은 단순한 글쟁이나 말쟁이가 아니었다. 형은 조국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멕시코의 한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기록한 진정한 인문학자였다. 당시 적성 국가였던 쿠바에는 자신이 갈 수 없어 가오루 형수님이 대신 가서 조사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더불어 사는 부부였다.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형은 배려심이 많은 참 넉넉한 사람이었다. 우리만의 추억이 되어버린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한 선배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에 헤어졌다. 때 아닌 장대비가 쏟아졌다. 택시를 불러 가겠다는 나를 이런 날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대학도시역 근처에 있는 산토도밍고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길을 잘못 들어 얼마나 헤맸던지 때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집 앞에서 내려주며 미안하다며 씩 웃어주던 그는 진정 나의 형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만남의 장도 한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형과의 만남은 늘 현재진행형이었다. 일상에서, 학회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만날 기회를 만들고 만났다. 2003년 함께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메리다 등지를 다니며 멕시코 한인 조사를 했던 그 시간은 소중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만남 대신 그리움만 쌓여갔다.

멕시코에서 형의 집에 갔다가 거실 앞은뱅이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박사논문을 위한 연구노트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연구노트에는 깔끔하고도 예쁜

손 글씨로 형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뒤로 나도 어설픈 연구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형의 학문적 열정과 이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연구노트와 연구자료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형을 따라 한국 그리고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이따금 전화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할 뿐이었다.

지난해 11월 부산외대 중남미연구소의 콜로키움에 참석하러 가기 전 날, 형이 전화를 했다. 일본에서 선약이 있어서 “너가 오는 데 얼굴 못 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일본 집에 가족들과 놀러 와라,” “언제 형수님과 함께 춘천 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또 올해 초 어느 날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다가 끊은 전화가 마지막이었다.

서로 그리움만 잔뜩 쌓여 있었는데...

형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웠을까?

형에게 이 세상은 그리 넉넉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고 말한다면 나만의 생각일까?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형은 이 세상에게 넉넉하고 아름다웠다.

형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형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형이 머무는 하늘나라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NUESTRA AMERICA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성철 선생은 2018년 5월 30일 오후 12시 10분 부산
영락공원에서 쿠바의 음유시인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우니코르니오가 내는 길을 따라 재(灰)와 무(無)의
세계로 들어갔다. 1955년 서울 출생. 향년 63세. 회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1995년 가을이었다. 나는
스페인에서 논문을 읽고 귀국한 즈음이었는데 그도
국립멕시코 자치대학교 철문학부 문학과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박사 논문으로 쓰고 막 귀국한 터였다.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사정이 뻔했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선후배들은 대학원 시절 얼굴을 익힐 수 있었으나, 그와 나 사이에는 학번 차이가 있었던 사유가 있고 그가 학부를 마치고 약간의 회사 생활을 거친 후 바로 멕시코로 유학을 떠나, 우리가 처음 대면할 기회는 좀 늦어져야 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아마도 그를 처음 본 이들이 갖는 그에 대한 인상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사실 나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약간은 기대가 빠지고 살짝 웃음이 나왔다. 깡마른 작은 체구에 남은 것 보다는 빠진 것이 더 많은 머리카락, 흔치 않은 얼굴 표정과 공부한 사람이 보통 갖고 있는 익숙한 목소리 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건 세상과 사람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 이었다. 음, 그래 네가 영일이구나, 반갑다. 그가 처음 나에게 건넨 인사말이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오래 보아온 동생을 대하듯 나를 대했으며, 이런 태도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격의없고 다정하며 소박한 형식으로 교유함을 그 이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 귀국해서 한국에 중남미 문학을 소개하는데 노력하고 있던 김홍근, 송병선 선생등과 함께 중남미 문학을 강독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스타디 모임에는 멕시코에서 귀국한 김은중, 스페인에서 공부를 마친 신정환, 그리고 외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송윤정, 고인경, 박정희, 김지홍 등의 후배들이 같이 했다. 권미선 선생도 한동안 참석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스페인 유학을 준비하던 장재원군이 같이 했다.

우리는 매주 한차례 외대 대학원의 빈 강의실에 모여 문학이론을 토론하며 세르반테스에서 보르헤스에 이르는 작품을 강독했다. 모임은 오후 서너시쯤 시작해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겨울방학이 되면 저녁에 학교의 난방이 끊겨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 집씩 돌아가며 모임을 갖는 것이었는데, 주된 겨울 아지트는 서성철 선생 집이었다. 미아리에 위치한 그의 집은 오래된 2층 양옥이었는데, 서울의 인구가 팽창하던 6, 70년대의 집장사가 지은 집과 달리,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제법 법도를 갖춘 집이어서 우리들의

겨울 안식처로는 더없이 훌륭했다. 그와 형수인 카오루상은 마콘도라는 제목을 단 메뉴판을 만들어 우리들의 저녁을 준비했다. 스타디 모임이 있던 어느 오후 그의 집에 들어서는데 그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간의 작은 방에서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책을 펼쳐 놓고 열심히 원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까치 글방에서 1997년에 출간될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번역원고 였다. 한국에 중남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보와 도서가 풍성하지 않던 시절에 그는 결코 쉽지 않은 그 책을 깔끔하게 우리말로 옮기고 있었다.

스타디 모임은 1999년 경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될 때 까지 꾸준하게 이어졌고 나는 그를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학에 자리를 얻는 것이 여의치 않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공부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었다.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입사하여 700만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의 전공을 살려 멕시코 한인 애니깁 사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과의 교류 현장에도 그는 달려갔다. 재단을 사직하고 그는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홍보관으로 파견되었다. 그가 파견되었을 당시 정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를 통해 아르헨티나를 거점으로 한 라틴아메리카의 한국학 연구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인문학자로서의 인식 지평과 현실 감각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정부의 의지를 현장에서 훌륭하게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그 시절 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아르헨티나의 저 저명한 출판사인 에메세에서 은희경과 이인성의 소설을 출간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출간된 최초의 한국문학작품들이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기가 끝나자 스페인의 홍보관으로 발령받는다. 스페인에서의 그의 홍보관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는 스페인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문화원은 실질적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도시의 어느 곳에 위치를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해외에 개설된 30여개 이상의 한국문화원의 위치를 보면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스페인의 생활 경험이 없는 그가 마드리드에서 한국문화원의 가장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예산 계획 내에서 매우 정확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의 안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나는 그가 스페인에 주재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문학 행사를 위해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마드리드 문화원을 개설해 한국문화와 스페인문화의 만남을 멋있게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세상사는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는 법. 기대와 달리 그의 계약은 느닷없이 종료되었다. 그는 공직자로서의 시간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에서 그가 학자로서 처음 시작했던 시간으로 돌아와 중남미 연구에 남은 시간을 쏟았다. 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길은 임상래 선생이 호상으로 지켜주었다.

격식에 맞지 않으나 이상이가 내가 적는 서성철 선생 전이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교를 다녔으며 후년에는 부산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이라는 공간은 멕시코,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아르헨티나, 스페인, 일본,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를로스 푸엔테스, 커피, 대항해시대, 신들의 열매인 초콜릿 등 등 전지구적 공간과 500년의 시간으로 충만해 있다.

글을 마치려는 데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 영일아 그런데 말이다...

서성철을 기억하다.

임상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장)

우리 연구소는 지난 5월 동료이자 만형인 서성철 교수님을 잃었다. 그리 갑자기 떠날 줄 꿈에도 몰랐다. 남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기억하는 것뿐. 인간 서성철을 기억하며 몇 줄을 그의 영전에 바친다.

얘기할 필요 없이 그는 훌륭한 연구자였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전공했지만 역사에도 정통하여 라틴아메리카 근대사에 대한 좋은 연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의 관계사 연구에 열정을 보였던 그였다. 한국, 일본과 라틴아메리카간의 관계로 자신의 연구 지평을 확대한 것은 일본인 형수님과 가정을 이뤄서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 의식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서 그의 연구가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는 훌륭한 번역가이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문물과 인물에 관한 좋은 책들을 꼼꼼하게 번역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특히 나를 포함 많은 라틴아메리카 전공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카를로스 푸엔데스의 명저 ‘문혀진 거울’을 솜씨있게 번역해 내어서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인류문명사적 맥락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그의 학자로서의 공은 차고 넘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남미 역사 강의의 베스트 셀러이다. 수업을 할 때 마다 그가 생각날텐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는 멋쟁이였다. 그 나이에 청바지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그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길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채 떠났다. 그는 7080 수준을 넘는 음악 애호가였으며 거의 전문가 수준의 영화 매니아였다. 매우 의외이겠지만

젊었을 때 대한민국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산꾼이기도 했으며 아마 또래 중 다방커피가 아닌 진짜 커피를 가장 먼저 맛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에서 외교관을 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와인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그의 취향을 나는 추종했고 그래서 그가 6년이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이 잘 맞았다.

특히 그는 이야기꾼이었다. 스페인 공보관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우리대학에 쫓 함께 근무하면서 삶과 공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번쩍이는 해운대보다 한적한 송정 바닷가를 좋아한 그는 자기 성품처럼 사분사분한 구어체로 일상에서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나는 1980년대 말 멕시코 유학시절이 많이 생각난다. 유학생들의 아지트였던 Sotano 카페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을 넘나드는 그의 해박함에 나는 마치 학생처럼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 그의 커피와 담배와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니 그가 더욱 그리워지고 이 모든 것이 유행가

가사처럼 참 좋은 시절의 얘기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애절해진다.

떠나시기 바로 전날 호흡기에 의지하며 눈으로만 나누었던 그 인사가 마지막일 줄 진짜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상래야” 하는 그 목소리 정다워서 어찌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성철 형,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Chao...



김영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서성철 박사님이 떠난 빈 가슴 속에 즐거웠던 추억을 담으려 합니다. 지난 겨울 당신과 함께 했던 남미 현지조사는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현안과 열정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모습에 참석자 모두가 감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 순간이 함께 한

남미 여행의 마지막임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에
 애통함으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중남미지역원에서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늘 중남미라는 단어 속에
 당신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중남미로 기억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찾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림 1] 아르헨티나 현지조사



[그림] 아르헨티나 현지조사



[그림 3] 파라과이 사회과학연구소

서성철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우리 지역원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2011년으로 기억된다. 지역원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정보를 들었던 터라 필자의 뇌리에는 경험적으로 그 연세에 해당하는 분들의 다양한 이미지가 중첩되어 박힌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탈권위적이고 자유스런 모습은 역시 라틴아메리카를 전공한 학자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게다가 두건과 머플러, 가죽잠바, 청바지, 라운드 티셔츠 등 패션 센스는 오히려 형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 선생님의 모습은 30대였던 필자에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꿈꾸게 하였다.

멋스럽고 소탈함과는 별개로 글과 학문에 대한 선생님의 꼼꼼함과 열의는 나로 하여금 뒤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선생님은 정년이 가까운 어르신이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곁을 떠나기



직전까지 열정적으로 책임을 완수하셨다. 그런 선생님과 작년부터 본교 선생님들과 함께 동아시아 이민자 연구 프로젝트를 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선생님은 일찍이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이민자를 연구하셨기에 기대되는 공동연구였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다녔던 남미 3개국에서의 세미나와 연구가 선생님과 처음이자 마지막 현지조사라는 것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 그때 같이 나섰던 카톡의 대화창에는 당장이라도 선생님이 “구박사”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쓴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 따라 너무 그립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의 무더위를 대표하던 그 해의 겨울 동아리 선배형의 소개로 서성철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물론 선생님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유난히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빛에 부드러운 말투, 히피를 연상케 하는 패션에 길게 기른 머리. 대학교수라는 모든 이미지의 파괴자로 기억에 남아있었다. 이후 여러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로 학교에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13년 당시 우암동 캠퍼스의 중남미지역원은 연구교수들이 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배정받은 자리의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셨다. 20년이 지나 길었던 머리는 짧아지고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이미지로. 지역원의 첫날부터 2018년 마지막 뉘 때까지 참 많이도 함께 식사를 했고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와 담배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라도 서너 시간이 금방 흘렀다. 예술과 역사, 정치와 경제, 종교와

철학 등등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함께 찍은 사진도 변변치 않다. 물론 둘 다 사진 찍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아무튼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무엇보다 함께한 촛불시위의 순간들은 사진보다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다. 내 기억에 선생님이 그렇게 기분 좋게 소주를 원샷한 적이 없었더랬다. 흥겨 겨운 순간들이었다.

선생님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동백역에서 저희 집이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매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물론 함께 한 시간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함께 해보자던 이런 저런 연구들,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과 T. S. 엘리엇의 황무지까지두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면 완전 새로운 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나이차도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선생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필자가 서성철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지역원 내 선생님들 그리고 서교수님의 다른 지인분들과 비교해 그 “길이”와 “깊이”는 터무니없이 짧고 얇다. 하지만, 한 공간에 같이 보낸 시간은 그리 짧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피스 메이트”이기 때문이다.

한 연구실을 같이 사용하며, 서교수님에게 배운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남을 존대하는 것이다. 한참 후배격인 필자에게 서교수님은 항상 존대하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박사, 일찍 왔네! 이박사는 잘 될거야!”



중남미지역원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나우강에서

서교수님을 회상하는 글을 작성하는 지금, 필자는 멕시코에 (잠시 방문해) 있다. 서교수님이 10여년의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그런지, 서교수님과 멕시코가 더욱 오버랩 된다. 늦은 오후,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삶을 영위함에 묻어나는 멕시코인들의 일상의 소리가 더욱 힘차게 들린다. 서교수님도 이곳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감을

얻었으리라!

함께 공유한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앞서가신
선배님의 귀한 연구와 삶의 진지함을 본받아 더욱
겸손히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살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국가별 연구동향(2018.04-06)

The Latin American Centre University of Oxford,
St Antony's College

(옥스퍼드 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센터)

웹사이트: <http://www.lac.ox.ac.uk/>



일시 : 2018년 4월 24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Empire in retreat: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nited States” (제국의 후퇴: 미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

일시 : 2018년 5월 3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A Southerner South of the Border: How William Jenkins Became Mexico’s Richest Industrialist”(남쪽국경의 사람: 어떻게 윌리엄 제킨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가가 되었나)

일시 : 2018년 5월 9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Reimagining the People: Lamennais and his Influence in Spain and Latin America, c.1838-1870”(사람들의 생각 바꾸기: 라므네와 그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 미친 영향, 1838-1870)

일시 : 2018년 5월 17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The Representation of Spanish American Interests at the Imperial Court in the Age of the Bourbon Reforms, c. 1750-1808”(부르봉 왕가 개혁 시대의 스페인계 미국인의 이해관계)

일시 : 2018년 5월 31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Luisa Coleta and the Capuchin Friar: Slavery, Salvation, and the Adjudication of Status (Havana, 1817)” (루이사 콜레타와 카프친회 수도사 :노예제도, 구원 및 판결 유형 (아바나, 1817))



일시 : 2018년 6월 7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Instituciones y Petróleo en México y Venezuela, 1900-2017”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서의 기관과 석유)

일시 : 2018년 6월 14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Raza y ciudadanía(s) en la América de Bolívar del Antiguo Régimen a la Independencia' and 'Race and Democracy in Chile, 1800-18 (볼리바르의 독립국가에 대한 오래된 통치에서의 인종과 시민권 그리고 칠레에서의 인종과 민주주의)'

알칼라 대학교(UAH)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웹사이트: www.ielat.es

일시: 2018년 4월 11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del Grupo de investigación UAH

DERECHO Y EMPRESA — El estatuto del trabajador autónomo: aspectos laborales y fiscales de la Ley 20/2007, de 11 de julio (세미나: UAH 법률과 기업

연구그룹세미나 — 자영업자의 법규: 7월 11일, 법 20/2007의 노동과 재정의 측면)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일시: 2018년 4월 13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IELAT — ¿Tiene futuro la UE?:
 populismos, democracia iliberal y nuevas oportuni-
 dades (세미나 — 유럽 연합 (EU)은 미래가 있을까?
 대중주의, 사상 민주주의 및 새로운 기회)

일시: 2018년 6월 7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 "El uso de la fuerza en el Derecho Internacional contemporáneo" | Audiencias preliminares de la competición en litigación internacional (세미나: "현대 국제법에서의 힘의 사용" | 국제소송에서 경쟁의 예비 심문)

일시: 2018년 6월 8일, 15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interdisciplinar de metodología en Ciencias Sociales y Jurídicas — Doctorado en América Latina y la Unión Europea en el contexto internacional (세미나: 사회과학과 법률 방법론 협동세미나)

Instituto de Estudos Avancados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상파울루대학교 고등교육 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iea.usp.br/>

일시: 2018년 4월 6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Direitos Humanos no Brasil e no Mundo
(세계와 브라질에서의 인권)

일시: 2018년 4월 12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A FIESP e a Indústria do Futuro (노동조합과
미래산업)

일시: 2018년 4월 26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Linking Landscape Structure to Ecosystem Ser-
vices (조경구조에 생태시스템을 접목시키다.)



일시: 2018년 4월 27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Lançamento da Cartilha - Agricultura Urbana: Guia de Boas Práticas (‘도시 농업: 우수 사례 소개서’ - 책 출판)

일시: 2018년 5월 14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Reforma do Ensino de Engenharia (공학교육의 개혁)

일시: 2018년 5월 16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Encontro de Pesquisadores IEA 2018 (2018 국제에너지 기구 연구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4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Dinâmicas Socioterritoriais na América Latina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영토 역학)

일시: 2018년 6월 18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Ecossistemas Nacionais de Inovação: O Modelo Brasileiro e Experiências do Exterior (전국 생태시스템의 혁신: 브라질 모델과 국외의 사례들)

UCLA Latin American Institute
(UCLA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international.ucla.edu/lai/#.W0VpF9IzY2w>

일시: 2018년 4월 30일 / 행사종류: 강연

주제: Disappearing Cities: San Juan, Santo Domingo, Cartagena, and the rising Caribbean Sea (사라지는

도시: 산 후안, 산토도밍고, 까르파헤나 그리고
떠오르는 카리브 해)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중남미지역원

일시: 2018년 5월 4-5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Nahuatl language and culture (나와틀족의 언어와 문화)



일시 : 2018년 5월 18일 / 행사종류 : 학술행사

주제 : Quino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lobal Food Security (퀴노아의 지적재산권과 세계 식량 안전)

간추린소식 (04-06월)

1. 제 51회 초청강연회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4월 10일 부산외대 글로벌센터 (A동) 410호에서 제51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전 칠레대사인 황의승 대사를 초청하여 ‘중남미 민주화와 21세기 정치,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 되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중남미의 민주화와 정치, 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2.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찾아서’를 주제로 무료시민강좌 개최

NUESTRA AMÉ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개원 20주년 기념 시민강좌

인문한국90지점사업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찾아서

4.20. (금) 16:00 - 18:00 정해주 고고학자, 마야전문가 마야인은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4.25. (수) 16:00 - 18:00 이종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아즈텍 제국의 꽃의 전쟁과 화생제의	5.4. (금) 18:00 - 18:00 김항욱 NGO활동가 및 여행가 잉카 유적을 찾아서 (인페스 사진기 여행)
---	--	---



○ 장소: 부산일보 소강당(지하철 1호선 부산전역 7번 출구)
 ○ 주최:  중남미지역원
 ○ 후원:  부산일보사  인문한국90지점사업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3회에 걸쳐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해서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무료시민강좌를 열었다. 4월 20일에는 정혜주 고고학자가 ‘마야인은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펼쳤다. 두 번째 강연은 4월 25일 이종득 덕성여대 교수가 ‘아즈텍 제국의 꽃의 전쟁과 희생제의’를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마지막 강연은 5월 4일 김황옥 여행가가 ‘잉카 유적을 찾아서 (안데스 자전거 여행)’ 강연을 했다. 이번 시민강좌는 부산

시민들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제36차 중남미지역원 콜로키엄 개최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지난 4월 27일 “자원 붐 이후 중남미 경제의 발전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 36회 콜로키엄이 진행되었다. 이 날 콜로키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권기수교수가 참석해 200년대 전례

없던 자원 붐이 중남미 경제에 미친 공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남미 경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4. 5월 월례세미나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5월 1일 화요일 부산외대 글로벌센터 (A동) 410호에서 5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지역원 교수 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와 유토피아의 귀환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본 세미나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본 실재한 유토피아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이었으며 동시에 디스토피아의 예 또한 라틴아메리카다.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문화/사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유토피아의 개념을 전망한다.”고 심도 깊은 토론이 전개되었다.

5. 제37차 중남미지역원 콜로키엄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지난 5월 11일 HK교수, HK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정치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대학교 이상현 교수를 초청하여 제37회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은 라틴아메리카 정치 연구의 현재 상황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6. 중남미지역원 연구보조원프로그램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지난 6월 7일 차세대 중남미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클리 리포트(Weekly Report)를 진행했다. 리포트 프로그램은 매주 중남미에 관련된 소식을 영어로 받아 보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남미지역원 연구보조원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7. 2018년 하계 중남미지역원 · 한국 스페인어문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 스페인어문학회 2018년 여름 학술대회					
주제 :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과 윤리"					
일시 : 2018년 6월 16일(토)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회의실					
시간	내 용				
12:30~13:30	등록 및 중식				
13:30~14:00	개회식 (사회: 신재식 총무) (장소: D관 회무·회의실 D110호) ~개회사 : 남영우 (한국스페인어문학회장) ~환영사 : 임상재 (중남미지역원장)				
	제1분과 언어 및 교육학 D106호	제2분과 스페인 문학 D109호	제3분과 중남미 문학1 D114호	제4분과 중남미 문학2 D115호	제5분과 문학 및 지역학 D116호
13:30~14:00					
14:00~14:30	좌장: 임상재	좌장: 권미란	좌장: 우익봉	좌장: 최관준	좌장: 임수진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좌장: 신재식	좌장: 정동섭	좌장: 송영찬	좌장: 황수현	좌장: 이순주
16:30~17:00					
17:00~17:30					
17:30~18:00	종 회				



중남미지역원

2018년 06월 16일(토)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과 한국 스페인어문학회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과 윤리"라는 주제로 5분과로 나누어 스페인과 중남미의 어학, 교육학, 문학, 문화, 지역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8. 학술총서 ‘라틴아메리카, 세계화를 다시 묻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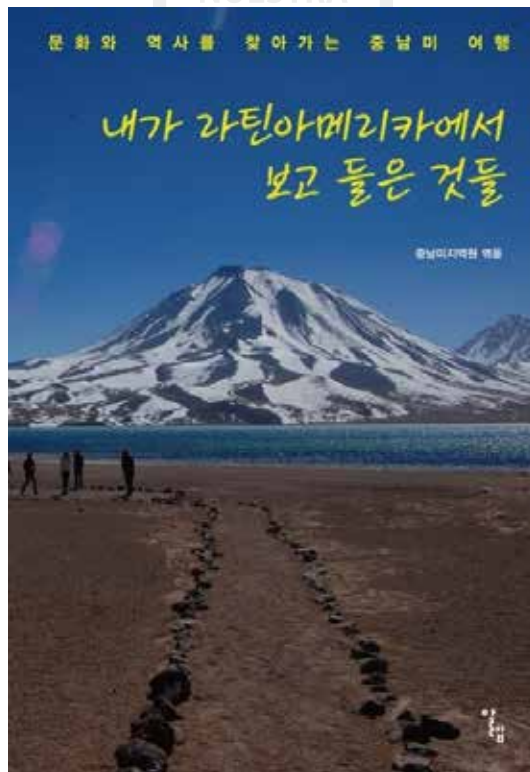


중남미지역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년간 수행한 HK 사업의 연구 성과들을 총정리하여 엮어낸 학술총서 ‘라틴아메리카, 세계화를 다시 묻다’ (알렙)를 발간했다.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10년간 다채로운 활동으로 성과를 축적했으며, 이번 책은 그런 10년 활동을 총괄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책에는 필진 10명이 동참해 학술적 성격의 글 16편을 실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를 ‘세계화’라는 프리즘으로 비춰볼 때

세계와 라틴아메리카의 실상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와 학계의 인식 지평을 크게 넓힐 수 있다. 세계화 국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선택과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 책은 묻고 또 답변한다.

9. 연구총서

‘내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고 들은 것들’ 발간



중남미지역원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여행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발간했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지도 그리기’를 중심 화두로 중남미 거의 모든 대륙을 남에서 북으로 횡단하여 역사문화 도시를 찾아가는 순례이다. 체험 수기와 사진이 들어있고 인문학적 시선과 지역학적 탐구 정신으로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속살을 인문의 눈으로 관찰, 사회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기획이며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